

# 터빈 추만

한국미술의 물성과 정신성

터빈 추만 한국미술의 물성과 정신성

박여숙화랑 | PARK RYU SOOK GALLERY

터빈  
추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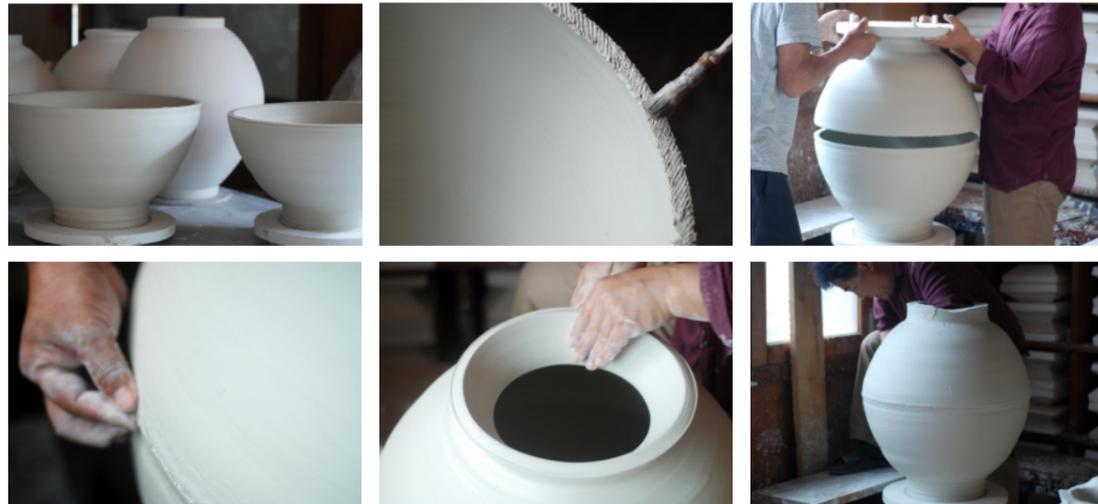
한국미술의 물성과 정신성  
2020. 4.10(금) ~ 5.10(일)

# 한국의 단색조 회화, 시간과 과정과 비움의 현현(顯現, Manifestation)

글. 정준모(큐레이터, 미술비평)

## 달 항아리를 보며

멀리서 보면 등글지만 가까이서 보면 모양이 찌그러지고 일그러진 달 항아리는 한국미술의 전통과 역사 그리고 미학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게다가 투명한 유약의 우윳빛 색은 가히 색이 없는 것 같지만, 스스로를 드러내지 않을 뿐 자신의 색을 분명하게 지니고 있다. 그런데 이 크고 가끔은 뒤틀린 항아리의 특징은 단순하게 보고 즐기는 완상용이 아니라 생활에서 사용하는 생활 속의 그릇이라는 것이다. 달 항아리는 조선 시대 후반 즉 19세기에는 접시와 함께 가장 많이 생산되던 생활 도구였으며 부와 지위와 관계없이 반상을 가리지 않고 집 집마다 한 두 개씩 놓고 쓰던 생활필수품이었다.



지름이 40cm가 넘는 원형의 백자 달 항아리는 우리나라 고유의 양식으로 그 크기 때문에 이를 만드는데 고도의 기술을 요한다. 너무 크기가 큰 나머지 형태를 만드는 과정에서 흙의 무게를 견디지 못해 주저앉거나 무너져 내려버린다. 그래서 각각의 큰 대접을 만들어 마주 보고 붙이는 방식으로 만든다. 위와 아래 부분으로 각각 반씩 나누어 만들어 어느 정도 마른다음 초벌 구이를 하기 전에 이 둘을 연결하여 초벌과 재벌구이를 하기 때문에 중간에 이음 자국이 보이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이때 자연스럽게 서로 붙은 부분이 붙을 때 소성과정을 거치면서 수축하게 되고 또한 흙의 무게로 인해 뒤틀어지면서 비정형의 원형이 탄생하는 것이다. 특히 소성과정에서 흙의 끝 부분 부터 수축을 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마치 풍선의 중간 부분을 실로 묶어 놓은 것 같이 살짝 들어간 자국이 보이기도 하다. 달항아리의 유백색도 멋이지만 슬쩍 비틀린 자세나 또는 벨트를 멘 중년남자의 불룩나온 배를 연상시켜 유머러스하거나 해학적이기까지한 것도 이 때문이다.

1) 전연회화형식을 띠는 무채색계열의 그림으로 70년대 중반 한국에서 발생한 회화양식이다. 이일은 이를 '한국적 환원주의' 또는 '비물질주의'와 '범자연주의'로, 오광수는 '비물질화의 단계', '중성구조로서 바래진 정서의 표면'으로 그 특성을 파악하고 있다. 반면에 윤진섭은 '단색화'(Dansaekhwa)라 칭한다. 홍가이는 '담화', 미국에서 활동하는 기조인도 '단색화'라고 표기하지만 영문으로는 'Tansaekhwa'라 표기하고 있다. 형식적으로는 '단색화'가 적합한 표현으로 생각되나 내용적으로는 예술철학자 홍가이의 '담화(淡畵)'가 더 적절하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연구자들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탓에 필자는 이련류의 회화를 '단색조회화'라고 쓴다.

한국현대미술을 이야기한다면서 웬 도자기 또는 달 항아리 이야기냐고 반문할 사람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달 항아리를 보고 있노라면 한국의 70년대 중후반부터 지금까지 한국현대미술의 큰 흐름을 이루고 있는 일련의 서구미술의 경향<sup>1)</sup>과 형식적, 내용적으로 매우 닮아 있지만 그것이 서구의 미니멀리즘과 기본부터 확연하게 다르다는 점을 보여주는 동시에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권대섭의 존재는 특이하다. 그는 대학에서 회화를 전공한 화가 지망생이었다. 하지만 도자예술에 스며들 듯 빠져들었다. 많은 이들이 전통적인 도자기법의 재현에 매달릴 즈음 그는 전통보다는 오브제로서 달항아리에 귀의했다. 따라서 그의 도자는 전통의 형태에 현대적인 미감을 담아낸다. 그리고 달항아리 특유의 유백색을 통해 부드럽고 따뜻한 시각적 질감을 탄생시킨다. 크고 넉넉한 형태가 세상의 모든 것을 담을 듯 하지만 스스로를 비워 누군가가 채워 줄 것을 기다린다. 이렇게 능동적인 동시에 수동적인 양면성이 그의 도자의 특징이다. 이렇게 그의 달 항아리는 한국의 현대미술의 한 경향인 '단색조 회화'는 또한 미국이나 유럽의 5~60년대에 시작된 모노크롬(monochrome)회화나 조각과 형식적인 측면에서 매우 유사하다. 그리고 이런 형식적 유사성으로 인해 내용과 상관없이 모노크롬 회화의 일부 또는 또 다른 한 유형으로 치부되기도 한다. 하지만 마치 달 항아리가 재질에서는 서양의 도자기와 일치 할 지 모르지만 그 기법이나 색채 그리고 내용 면에서 다르듯이 한국의 단색조회화도 모노크롬과 외형적인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전혀 다르다. 특히 모든 이들이 모노크롬 페인팅(Monochrome Painting)의 번역어인 '단색화'라는 말을 아무 저항없이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우리의 단색조 회화를 너무 외형적, 형식적으로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적절치 않다. 특히 단색조회화에서 중요한 것은 색이 아니라 그 내용과 형성되는 과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편적인 '단색화'란 언어적인 의미로 한정 지음으로서 그 운신의 폭을 좁혔을 뿐 만 아니라 너무 기법적인 면이 강조되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게다가 색보다는 그 외에 이들을 구성하는 더 비중있는 요소들이 단색화라는 언어적 한계로 인해 '색'에 갇혀버린 한계를 노정하고 있다.

1960년대 들어 예술의 본질에 대한 끊임없는 질문이 반복되면서 서양의 모노크롬은 색채로 드러나는 인간의 감수성을 배제하는 하드에지 페인팅(hard edge painting)이나, 형태와 색채의 극단적인 절제를 통해 감정을 배제하고 이성의 극단을 표현한 미니멀 아트(minimal art) 등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특징은 감정의 정점, 비 물질화를 통한 물질의 기화, 무의미한 단색 화면을 통한 무의 세계는 너무나 완벽하게 감정을 배제한 순수한 경지를 표현하고 있다고 평가를 하지만 반면에 지나친 결벽증에 의한 삭막한 공백에 불과하다는 비판도 있다.

하지만 이들 회화와 외형상 유사한 한국의 단색조회화는 반이성적이라는 점에서 우선 모노크롬과 다르다. 단색조 회화는 물질을 정신세계로 승화시켜 자연으로 회귀하려는 중성적 논리를 지녔다. 따라서 그들은 색채를 흰색 또는 무채색의 회색조를 주조로 은근하고 미세하고 미묘한 뉘앙스를 지니는 중간색을 사용하는 것이 다르다. 또한 서구의 모노크롬은 평면보다는 조각적인 요소가 강해 이들이 조각적, 입체적, 환경적인 측면이 강 한 반면, 한국의 단색조회화는 평면적인 속성을 중시한다는 점에서 그리고 달 항아리의 조각적, 입체적 면모와 비교해 보면 그 차이를 짐작 할 수 있다.

따라서 굳이 형식적인 유사성을 든다고 하면 라이만(Robert Ryman, 1930~)의 질감이 다른 갖가지 종이를 사용해 촉감이 시각적으로 느껴지는 흰색의 화면이나 만조니(Piero Manzoni, 1933~1963)의 털이나 솜의 질감을 가진 흰색 파이버글라스 작품처럼 평면을 넘어 평면의 변화를 주려했던 작품들에서 형식적인 유사성, 친연성을 찾아 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서구의 모노크롬이 형식적으로 전통적인 회화적 방법론을 부정함으로써 절대정신을 구현하고자 했다면 한국의 모노크롬은 속이 빈 달항아리처럼 완벽한 외형 즉 형식도 내용도 비어있는 그래서 사용하는 이가 물을 붓던, 기름을 넣어두건, 곡식을 담던 사용하는 사람에서 그 내용을 채우도록 방임한다는 점에서 그 성격이 확연하게 다르다.

하지만 지금까지 한국의 단색조회화는 서구의 현대미술에 대한 수용의 과정에서 나타난 일련의 변종 또는 한국적인 수용의 성과라는 입장 또는 수용과 저항 사이에서 문화적 정체성을 찾는 과정에서 생성된 일련의 성과물로 치부되어 왔다. 또 문화적으로 선진적이라는 서구에 대한 '따라하기' 또는 '따라잡기'의 결과물이란 생각도 강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단색조회화에 천착하는 작가들의 열정과 노력을 설명하기에는 부족하다. 또한 이런 방식으로는 이들 단색조회화의 맥락과 예술적인 바탕을 규명할 수도 없다.

하지만 비 서구의 예술과 문화에 관심이 많았던 미국의 화가 라인 하르트(Ad Reinhardt, 1913~1967)가 1950년대 초 인도 등 아시아 곳곳을 여행하고 나서 쓴 "시대를 초월한 아시아"(Timeless in Asia, 1960)라는 수필에서 "아시아 예술에 대해 할 말이 하나라도 있다면 그것은 시간을 초월함, 단조로움, 무위, 초월, 무표정함, 맑음, 평온함, 기품, 소극적"이라는 말이라고 했다.

이런 그의 동양 미술에 대한 인상은 마치 당시에 단색조 회화를 본 것이 아닐까 할 정도로 오늘날 한국의 단색조 회화의 외양과 내면에서 크게 다르지 않다.

따라서 이 전시와 글은 지금까지 한국의 70년대 미술을 단순하게 착종과 이식 그리고 변종으로서가 아니라 한국 현대미술의 가장 큰 특징이자 주도적인 미술의 한 경향인 단색조회화를 재료의 '물성'을 통한 '시각적 촉감'과 '시간의 중첩', '행위의 반복' 그리고 지지체가 곧 작품이 되는 '지지체가 곧 '표면'이라는 점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스스로가 스스로의 모습, 형태를 갖추어 가는 점에 착안해서 좀 더 세세하게 집중적으로 읽어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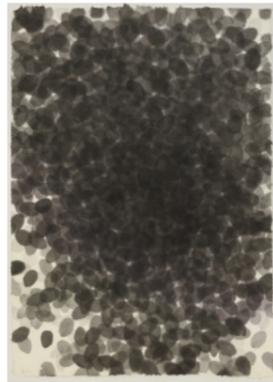
## 한국의 단색조회화 또는 모노크롬의 특징

한국의 단색조회화를 한국에서는 고도의 정신적인 세계의 구현으로 소박하고 단아한 한국의 선비문화를 통해 설명하고 이해하려 했다. 또한 다색주의의 반대적 개념으로 탄생한 서구와 달리 한국의 단색조회화는 한국 고유의 자연관과 물질관에 바탕을 둔 독자적 장르라고 생각해 왔다. 하지만 따지고 보면 한국의 단색조회화는 크게 보면 하나의 운동이고 경향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 속에는 다양한 양식들이 존재한다.

그 형식들을 살펴보면 평면에 그리는 행위의 결과물인 일루전을 지지체와 일체화 시키는 경향<sup>2)</sup>(그림 4, 5)과 표면 자체의 물성을 극대화시키거나 반복되는 패턴을 통해 표면을 더욱 표면이게 하는 경향<sup>3)</sup>(그림 6, 7), 반면에 안료를 지워감으로써 평면



박장년. 마포 78-5, 1978. 생마포에 유채, 162.2x130.3cm (그림 4)



곽인식. 81-P, 1981. 캔버스에 종이, 먹, 18x137cm, 국립현대미술관 소장 (그림 5)



정상화. 무제07-9-15, 2007. 캔버스에 아크릴릭, 259x194cm, 국립현대미술관 소장 (그림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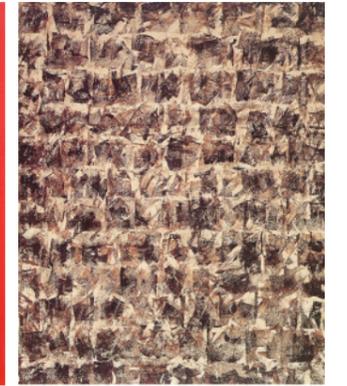
한영섭. 관계 No.9601, 1993. 한지, 탁본, 콜라주, 38x283cm (그림 7)

2) 박장년, 김용익, 김창열, 산성희, 이동엽, 허황, 서승원, 곽인식, 이승조, 김종일, 심문섭, 김홍석, 이강소 등이 있다.  
3) 정상화, 정경연, 진옥선, 최상철, 윤미란, 정영렬, 한영섭, 최창홍, 윤명로 등을 들 수 있다.

에 대한 회복과 질료의 비물질화를 시도하는 경향<sup>4)</sup>(그림 8, 9), 평면을 찢어 내던가 뚫어 입체적인 소통을 시도하거나 한지에 관심을 가지고 스며드는 수묵화의 침윤의 방법을 원용하거나<sup>5)</sup>(그림 10, 11) 그리는 행위의 반복을 통해 평면에 대한 자각을 극명하게 드러내는 한편 그린다는 자체의 표현성을 지워가는 경우<sup>6)</sup>(그림 12, 13)로 나누어 볼 수 있다.<sup>7)</sup>



김기린. 안과 밖, 1980. 캔버스에 유채, 195x130cm, 경기도미술관 소장 (그림 8)



이정지. 무제, 1981. 캔버스에 유채, 162.2x130.3cm (그림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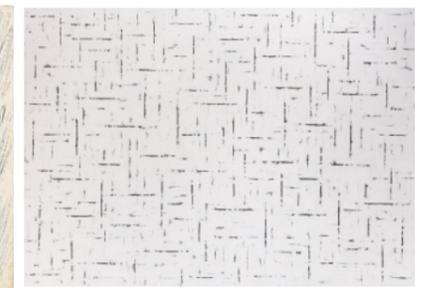
권영우. 무제, 1970년대, 한지, 162.2x130.3cm (그림 10)



하중현. 접합 92-45, 1992. 마포에 유채, 194x260cm (그림 11)



박서보. 묘법 1975, 캔버스에 유화 연필, 23x33cm (그림 12)



최명영. 평면조건 15-021, 2015, 163x127cm (그림 13)

4) 김기린, 최병소, 이정지, 김진석, 김응기 등이 있다.

5) 권영우, 하중현, 정상섭, 윤형근, 한기주 등이 있다.

6) 박서보, 형진식, 하동철, 김한, 최명영, 홍민표, 이봉열, 이우환, 이건용, 이완호, 김장섭, 조용익을 들 수 있다.

7) 이러한 분류는 국립현대미술관이 2002년 11월 21일부터 2003년 2월 2일까지 개최한 <한국현대미술의 전개 1970년대 중반-1980년대 중반: 사유와 감성의 시대> 전을 통해 이렇게 구분한 바 있다. 또한 윤진섭의 경우 국립현대미술관이 2012년 3월 17일부터 5월 13일까지 개최한 <한국의 단색화>전의 객원큐레이터로 참가하면서 이러한 형식적 내용적으로 구분하지 않고 참여 작가 모두를 단색조회화군으로 묶어 전시하였다.

70년대 중후반부터 80년대 한국화단의 단색조회화 열풍은 대단한 것이었다. 그래서 소위 '집단개성'화 하는 경향으로 나아갔다. 이 시기 한국은 현대미술의 절정기였다. 따라서 당시 한국의 단색조회화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외형적으로는 무채색 계열의 단색조회화가 대중을 이루지만 매우 상이한 형식과 방법론을 동원해서 각각 무채색에 도달하고 있는 것을 발견 할 수 있다. 특히 단색이라는 목적지에 함께 도달하고 있지만, 그 지점에 도달하는 방식이나 재료, 기법은 매우 다양하다는 사실이다.

당시는 한국사회가 산업화의 기틀을 마련하고 막 농업국가에서 벗어나려던 때이다. 이즈음 한국사회는 정치경제, 사회, 문화를 막론하고 서구화를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중시했고, 한국인들에게는 패스트 팔로워(fast follower)로서 이런 흐름에 즉시 동참한다는 사실은 매우 중한 의미를 지녔었다. 마찬가지로 서구 동시대 회화의 큰 줄기인 모노크롬과 형식적인 유사성을 지닌 단색조회화의 흐름에 다양한 팔로워가 생기는 것은 당연한 일로 거의 모든 회화형식과 기법으로 단색조회화에 도달하려는 경향으로 나타났다.<sup>8)</sup> 따라서 한국현대미술의 큰 특징이자 흐름인 단색조회화를 보다 분명하게 규명하고 정의하기 위해서는 모노크롬 집단을 지금까지 거시적으로 보던 방식을 지양하고 보다 미시적이고 분석적인 시각과 집중하는 입장이 필요하다.

## 물성-시각적 촉감

통상 한국의 단색 화가들은 자연을 거스르지 않는 한국의 전통 자연관을 바탕으로 수묵화와 서예의 정신인 여백, 관조, 기, 정중동, 무위자연, 풍류 등등 총칭해서 '한국의 정신적 가치'를 내면화 했다고 한다. 하지만 이러한 가치란 한국의 전통사상과 정신의 모두를 거느리는 넓은 의미의 가치이다. 따라서 한국 단색조회화를 이해하고 이야기하는 범주를 너무 확대하는 나머지 오히려 더욱 더 모호하고 실체가 없는 언어의 향연으로 치달아가는 경향이 있다.

그런 점에서 필자는 한국의 단색조회화의 가장 중요한 특징의 하나로 '시각적 촉감'을 상정한다. 대개의 사람들은 시각과 청각을 통해 외부의 정보를 받아들이기 때문에 촉감에 대해서는 그렇게 민감하지 않다. 하지만 촉감이란 원래 '외부의 자극이 피부 감각을 통하여 전해지는 느낌'으로 사물과 직접적인 접촉이나 만남을 통해 전달되는 감각이지만 시각적 촉감은 미술에서 중요한 요소의 하나이다. 왜냐하면 시각적 화면 고유의 물질적 재질감은 그림을 그림으로서 표현된 대상의 재질감으로 대체되어 나타나기 때문이다. 즉 유리잔을 그린 그림에서 유리잔의 질감을 느끼는 것은 시각적 촉감의 하나이다. 따라서 이는 미술의 중요한 요소인 양감과 함께 촉각적, 시각적인 효과를 배가 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단색조회화에서의 시각적 촉감은 회화의 기본인 지지체와 그 위에 그린다는 행위를 통해 드러나는 물감, 안료의 물성에 의해 드러나는 질감을 눈으로 보면서 느끼는 것이다. 즉 손으로 만져보는 등의 촉감을 통하지 않고 시각적으로 공간적 환영을 보는 것이 아니라 화면의 질감, 그 자체를 느끼는 것이다. 따라서 본다는 것은 사물이나 그려진 감상의 대상으로서의 회화작품을 보는 것이 아니라 화면에 눈을 뚫으면서 화면 그 자체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관객들은 이러한 시각적 촉감을 얻기까지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요한다. 왜냐하면 통상적으로 아무것도 그리지 않은 때문이다. 특정한 사물이나 대상을 그리고 있지 않아 일루전이 없는 때문에 화면자체에서 촉감을 느끼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마치 각기 다른 유백색의 달 항아리 표면에서 각각 다른 질감과 촉감을 느낄 수 있는 것처럼, 같지만 미세하게 다른 그리고 그 미세함에서 커다란 다름을 찾아내거나, 그 다름을 확인하는 일이야말로 시각적 촉감을 만끽하는 것이라.

박서보의 연속해서 반복적으로 내려긋는 선은 계속되고 반복되면서 지지체인 종이의 결들을 밀어낸다. 그리고 그 밀려난 종이를 구성하는 펄프의 속살이 선과 색과 함께 뒤 섞여 수많은 결을 만들어 촉각적인 화면의 결을 조성한다. 이렇게 그의 '결의 회화'는 그의 간단없이 거듭되는 행위로 인해 어느새 무아지경에 들어 스스로가 하는 행위의 동기와 결과를 놓아버리고 만다. 그렇게 결과를 방임하는 무관심성의 결과는 그의 작업의 백미이다. 게다가 그의 '무위자연'이란 개념을 접하면 그의 회화를 읽는 일이 한결 수월하고 편해진다. 그의 '무위자연'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유자재(自由自在)하고, 스스

8) 이들은 미니멀리즘이나 개념미술 같은 국제적인 미술사조를 수용하여 동시대의 보편성을 획득하는 한편 새로운 것을 시도해야 한다는 의무감과 한국적인 것을 추구해야한다는 책임감으로 고민했다. 여기에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혼란스러웠던 시기였기 때문에 많은 시행착오와 제약을 넘어서야 했다. 결과적으로 이들의 새로운 시도는 집단적인 형태로 나타났지만 이들의 실험적인 시도는 한국현대미술의 판도를 바꾸어 놓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로 그러하고 자유여체(自己如此) 즉 무엇에도 의존하지 않는 스스로의 판단과 결정에 따른 것이며, 사물의 실상과 자신이 합일함으로써 얻어지는 정신적 원만성이다. 즉 무리해서 무엇을 하려 하지 않고, 스스로 그러한 대로 사는 삶이 무위자연이다. 따라서 그의 결과에 연연하지 않는 무한한 행위의 반복은 스스로를 드러내는 과정이 된다.

정창섭의 경우는 종이 그 자체가 펄프의 형태로 스스로 모양을 잡으면서 캔버스 표면에 자리를 잡으면서 혼연일체가 된다. 그는 이 과정에서 재료인 닥과 작가의 행위가 일체화하면서 동양적 정신과 물질의 조화를 통해 합일을 이룬다. 따라서 그의 작업은 닥의 물성을 드러내어 침묵의 세계, 시간이 정지된 듯한 찰나를 담고 있다. 하지만 그의 화면을 통해 느껴지는 찰나는 그림이라는 속성 때문에 시간을 초월하기 때문에 찰나는 곧 영원이 된다. 그렇게 흐르듯 번지듯 스스로 형태를 만들고, 그 위에 작가가 부여하는 사각의 틀에 밀려 다시 스스로의 모습을 정하는 자연스러움은 그의 자연이 된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지는 한지이다.

정상화는 고령토를 지지체에 칠하고 접었다 펴면서 생기는 선을 토대로 물감을 계속 쌓아올리고 그후 다시 '뜯어내기'와 '메우기'는 행동을 반복한다. 그는 그렇게 물감을 화면에 올리고 다시 뜯어내기를 반복하면서 그 틈과 틈을 메꿔 나간다. 이렇게 그의 작업은 고령토 또는 물감을 쌓아 올리지만 물감은 여전히 결과적으로 지지체의 일부이다. 이렇게 그는 대상을 묘사하거나 장식적인 방식을 배제한 채 오로지 쌓아 올려진 그 지지체를 가로 또는 세로로 접고 펴는 작업을 통해 물감이 떨어진 곳에 다시 물감을 채워넣는 반복적인 행위를 거듭하는 것이 그의 일의 전부이다. 그에게 결과적으로 지지체인 동시에 그림인 작업에서 드러나는 흰색과 검은색, 자주색, 청색은 어떤 의미도 없다. 다만 행위를 위해 동원된 조연일 뿐이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결과가 아니라 결과일지 모르는 곳에 다다른 과정이다.

김태호의 경우는 단색이라는 색의 의미보다는 행위의 무한 반복과 그 과정에서 작가보다는 작품이 스스로를 드러내는 작업이다. 그는 색을 쌓고 다시 긁어내고, 다시 쌓은 다음 다시 긁어내는 과정을 반복한다. 그렇게 긁어내는 과정에서 드러나는 중첩된 색채는 묘한 여운을 갖고 눈에 들어온다. 따라서 그에게는 신체와 세계가 상호 침투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본다'는 체험 그 자체를 하도록 만든다. 사람이 살아있다는 것은 몸과 지각이 동시에 존재함으로서 가능하다. 따라서 지각은 인간 활동의 근원이자 세상을 받아들이는 통로이다. 김태호의 작업도 이렇듯 신체와 그것이 외부 또는 타자, 세상과 교감하고 지각하는 탐사의 과정이다.

김근태의 작업은 형태나 이미지가 없다. 따라서 그의 작업은 논리나 해석 또는 분별이나 이성으로는 독해가 불가능하다. 아니 처음부터 독해할 수 없는 작업일 수도 있다. 왜냐하면 그의 작업은 매우 단순하기 때문이다. 그의 단순함은 단지 흰색을 20~30회를 반복해서 칠하기때문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같은 작업을 단순하게 반복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그의 작업은 꾸준히 같은 일과 행동을 거듭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렇게 중첩되는 과정에서 스스로를 드러내는 흰색은 겹쳐지고 투영되면서 본래의 흰색이 아닌 결이 다른 겹의 흰색이 된다. 여기에 칠하는 과정에서 가끔 남게되는 흠집이 덩뎡한 그림을 그나마 한 번 더 들여다보게 할 뿐이다.

이진우의 회화에는 행위와 대상이 동시에 공존한다. 그는 캔버스 위에 나무를 태워 얻은 숯을 붙인 다음, 그 위에 한지로 덮어 붙인 다음 쇠술로 문지르고 긁어낸다. 그후 다시 한지를 덮어 바르고 그위에 쇠술질을 한다. 이렇게 반복되는 무목적인 노동 끝에 그는 숯과 그 틈새를 뒤덮는 한지의 물성이 이루어내는 질감을 얻게 된다. 그의 이런 '반복'되는 작업은 스스로를 갈아내는 작업인 동시에 스스로 자신이라는 존재를 부정하고 부정하는 거듭되는 부정의 과정에서 스스로를 스스로가 알아가는 것이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모든 것을 부정함으로서 역으로 긍정을 느낄 수도 있다. 이렇게 안과 밖이 동시에 공존하는 또 수시로 역할이 바뀌는 과정에서 숯과 한지는 물아 일체를 이룬다.

최병소의 경우는 일상적으로 새로운 소식을 전해주는 신문이나 기타 잡지등의 매체를 사용한다. 날짜가 지나면 무용지물이 되는 신문은 새로운 소식을 담았을 때 만 유효하다. 그는 언어의 지지체로서의 신문을 여지없이 범한다. 그는 연필이나 볼펜으로 거듭 신문 위에 의미없는 드로잉을 해 나간다. 언제 끝날지 모를 행위가 반복되면서 신문지 또는 그의 그림의 지지체는 지지체로서의 기능을 탈각하고 하나의 '너털너털' 오브제로 변한다. 그래서 그의 작업의 지지체는 스스로의 의미는 물론 그가 담았던 단어나 문장의 의미까지 모든 것을 상실한 채 그냥 하나의 미지의 새로운 물성으로 되돌아간다. 아니 되돌아가기보다는 새로운 성질의 또 다른 것으로 변모해간다. 종이로서의 기능과 의미는 사라지고 새로운 표정을 지닌 그의 종이는 종이 너머의 종이인 동시에 작가의 행위를 오롯이 몸으로 받아낸 작품이 된다.

김덕한은 한국의 오랜 전통 안료인 옷칠을 통해 자신의 작업을 완성한다. 매우 장식적인 공예품의 주재료로 쓰였던 옷칠을 현대미술의 전면적인 물성을 치환시켜내는 그의 작업은 어느누구의 작업 못지않게 시간을 요하는 작업이다. 그리고 그 시간이 축적되어 스스로를 드러내는 과정은 지문이 닳아 없어질 만큼 인내와 고통을 수반한다. 옷칠은 칠하고 건조되는 과정이 녹록한 작업이 아니다. 그는 한가지 색을 바르고 건조되길 기다려 사포질을 하고 그리고 나서 다시 칠하고 건조되면 사포질을 하는 일을 반복한다. 이런 반복의 과정은 어느 단색조 회화작가들과 같다. 공통적이다. 그런데 그의 작업의 재미는 사포질에 있다. 무심하게 반복되는 사포질에 자신의 몸무게를 실어 계속 반복하다보면 어느 덧 누구도 예기치 못했던 먼저 칠해진 색들의 흔적이 스스로 드러난다. 바로 그 자연스러움, 뜻하지 않게 뜻 밖의 색이 출현하는 그 순간을 그는 기다린다. 게다가 가끔은 의도치 않았던 사포질의 완급이나 힘의 분배와 상관없이 스스로 지지체인 동시에 그림이 되는 우연하게 수줍은 듯 드러내는 작품의 결과를 그는 기다린다. 끊임없이 사포질을 하면서.

윤상렬의 작업은 샤프 심이라는 기성의 물성이 강한 재료를 사용해서 새로운 물성으로 현현하는 작가이다. 정교하고 약한 샤프 심을 작품의 재료로 사용하기 때문에 일견 매우 옵티칼(Optical)하게 보이기도 하지만 전통적으로 미술이 시각적인 착시 현상에 의존해 왔다는 점에서 그렇게 낯설지 않다. 사실 현대미술이 등장하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사람들이 자신들이 보고 있는 진실이라 믿었던 그림들이 착시에 의한 허구라는 사실을 실감하면서 부터이다. 그렇다면 진실된 회화는 무엇일까. 내가 지금 보고 있는 현실도 실은 백일몽 같은 것은 아닐까. 그는 이런 허구에 대한 실체를 허구 속에 은닉함으로써 진실과 거짓, 안과 밖, 대상과 지지체, 나와 너, 주체와 타자의 혼란스런 경계선에 서 있는 그림이란 존재, 보고있는 관객의 존재를 실체와 허상의 중간지대로 끌어들인다. 그리고 그는 그 중간지대를 만들기위해 정교한 노동을 멈추지 않는다.

이렇듯 단색조회화는 안과 밖이 공존하는 그림이다. 또한 보이지만 볼 수 없는, 보이지 않는 그림이다. 하지만 지지체 자체를 보는 순간 그 화면을 지지하고 있는 지지체 자체의 시각적 질감이 하나의 그림으로 완결되어 작품이 된다. 평소와 같은 시각적인 체험을 통해 우리는 아무 것도 보지 못하지만 그동안 보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했던 것을 시각적 촉감을 통해 얻게 되고 알게 되는 것이다. 재현된 어떤 사물이나 대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보는 순간 사물이나 대상을 떠 올리거나 이미지에 더 이상 방해받지 않고 순수하게 화면에서 드러나는 지지체의 질감을 통해 본다는 것의 진정한 의미와 보는 이의 감정적 일체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이 서구의 모노크롬 회화와 다른 점이다. 그래서 단색조회화는 마치 소리를 듣고 음색을 통해 악기를 알 수 있는 것과 같다.

## 쌓임과 겹침

단색조 회화의 또 다른 특징의 하나는 '시간의 중첩'과 '행위의 반복'으로 작업은 '겹' 또는 '겹겹이' 쌓아 올려진 것이 특징이다. 이렇게 지지체에 매우 균질한 행위가 거듭되면서 그것이 거듭되어 쌓일 때마다 그 결과물은 지지체와 혼연일체가 되면서 서정적인 느낌을 준다. 물론 언 듯 보면 하나의 균질한 색채로 도포된 듯 보이지만 찬찬히 들여다 보면 화면의 호흡이 느껴지면서서 신비로운 느낌마저 준다.

윤형근은 그림의 바탕이 되는 지지체에 붓질을 가하지만 붓질보다는 화면 즉 지지체와 일체화한 흔적을 중시한다. 그의 그림을 두고Judith Stein,1940~2017)같은 이는 “강한 현존성-엄숙히 절제된 침묵”이라고 평했다. 검은 듯한 진한 갈 색이나 진한 청색이 수차 거듭 어느 부분에 반복적으로 칠해지면서 층위를 이룬다. 그리고 그 반복되는 착색과정에서 지지체에 흡수되면서 지지체와 자연스럽게 일체가 되는 동시에 그 반복되는 무엇인가를 칠하는 과정에서 남는 경계선들이 겹쳐지면서 스스로의 존재를 드러내 미묘한 겹의 차이를 보여주며 마무리된다. 그림과 바탕, 물감과 지지체라는 이분법적 구조는 어느 사이엔가 하나로 통합되면서 탈속화 한다. 이제 그에게 그려진 것과 그려지지 않은 곳은 아무런 의미도 없다. 마치 바탕과 칠해진 곳을 구분하는 것이 무의미할 만큼 바탕인 동시에 그림이 된다.

김창열의 작업은 어느 면에서 보면 일종의 '거울회화'라는 생각을 하게 한다. 대상을 철저하게 묘사한듯한 그래서 곧 흘러내릴 듯한 물방울은 그의 트레이드 마크이다. 하지만 그의 작업을 극사실회화로 분류하기보다는 단색조 회화에 편입시키는 이유는 그의 작의가 물방울에서 시작했다하더라도 오늘날 그의 작업은 행위의 반복과 그려진 것과 바탕 즉 지지체의 일체화를 이룬 때문이다. 우리는 그의 작업을 통해 투명한 물방울을 보지만 실인즉 그의 물방울은 오직 보는 사람의 경험과 착시에 의

한 것으로 실제로는 지지체를 살려두고 어느 일부에 물방울을 묘사한 것이라기보다는 지지체와 가장 가까운 색을 최소한 올려놓은 것에 불과하다. 여기에 문자가 바탕에 있는 경우도 그 자체가 지지체로서, 바탕에 올라앉은 형국이 아니라 지지체와 일체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물방울 그린 것이 아니라 지지체와 가장 최소한의 근접한 색채를 반복해서 올려놓고 관객들에게 물방울로 보이도록 한다. 그리고 관객들은 “지지체 위의 그림”이라는 고정관념 또는 습관 때문에 물감을 물방울로 인식하게 된다.

사진은 인화지에 이미지, 형상을 기계적인 장치와 현상과 인화의 과정을 통해 이미지를 고착화시키는 기계적인 방식이다. 하지만 김아타는 이런 사진의 법칙과 자연의 법칙을 거스른다. 그의 사진은 이미지 또는 대상을 화면에 고정시키는 것이 아니라 사라지게 만든다. 그는 형상을 날려버린 사진을 통해 자신의 작업을 바라보는 이들에게 사진의 존재와 인간의 실존의 문제를 동시에 묻는다. 이런 불가사의한 그의 사진의 매력은 그의 사진을 대하는 태도와 맞닿아있다. 그의 작업의 비밀은 장노출기법에 있다. 8시간 이상 노출을 주게 되면 피사체인 풍경 또는 대상의 움직임과 비례해서 상이 사라지게 된다. 빨리 움직이는 대상은 빨리 사라지고, 천천히 움직이는 대상은 천천히 사라진다. 다만 움직이지 않는 정지된 것들은 분명하게 남는다. 도시를 찍다 보면 건물은 그대로인데, 움직이는 것들은 모두 사라지고 말아 유명한 도시처럼 아무도 없는 텅 빈 도시만 남는다. 움직이는 살아있는 생물들은 사라지고, 움직이지 않는 무생물만 사진에 남는 그의 사진은 ‘존재하는 모든 것은 결국 사라진다’는 테제를 실질적으로 보여준다.

김택상은 보거나 느낄 수 없는 두께를 천천히 쌓아 올린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그의 이런 ‘쌓아올림’을 감각적으로 알아차리 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그에게 지지체는 프레임이 없는 얇디얇은 천이다. 거의 존재를 느낄 수 없는 지지체가 매우 농도가 낮은 다만 작가 순수한 물과 구별하기 위해 색을 풀어놓은 맑은 물이나 다름없는 매우 농도가 낮은 물감 속에 담구어 물이 증발하기를 기다린다. 이렇게 담구 놓은 지지체는 계속해서 이런 반복적인 행위와 시간이 거듭됨에 따라 자신을 드러내기 시작한다. 질료로서의 물감이 지지체인 화면에 흡수되면서 상호 동화되어 질료와 지지체가 하나로 통합되며 그 중첩된 시간의 축적물 또는 퇴적물은 작품이 된다.

강영순의 경우도 겉과 속이 같다. 그렇기 때문에 겉과 속을 구분할 수 없다. 강영순의 작업에서 지지체는 지지체라고 하기에 너무도 약하고 부드럽다. 무엇인가를 지지하기에는 턱없이 연약하다. 우리에게 그림, 미술작품은 항상 지지체 위에 발린 물감으로 대상을 표현하다고 믿어왔다. 제 아무리 미술이 추상화하고, 첨단인 새로운 미술이 등장해도 미술이란 용어가 붙어 있는 이상 ‘재현의 미술’은 우리의 고정된 관념이다. 부정하면 부정할수록 더욱 강하게 작동하는 ‘재현’의 신화는 우리를 괴롭혀 왔다. 그런 점에서 강영순의 회화는 회화 이전의 회화인 동시에 회화가 아닌 회화이다. 무언가를 그리거나 표현하기보다는 지지체라는 존재 그 자체를 작품으로 오브제로 드러낸다. 따라서 그의 작업은 보여주기보다는 스스로를 들여다보는 거울 같은 존재인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 스스로가 가끔은 작품 자체가 되어 작품이 작품을 들여다본다는 점에서 단색조회화의 또 다른 면모를 드러내 보여준다.

이진영의 작업은 인간이 19세기에 화가들의 존재를 위태롭게 한 사진기를 이용해 작업한다. 그의 작업은 가장 명확하게 대상을 포착해낸다는 사진의 불명확성을 사용해 작업한다. 그의 작업에서 드러나는 대상은 모호하다. 형태에서도 모호할 뿐만 아니라 사진이나 회화냐의 경계도 모호하다. 따라서 그의 작업은 경계나 구분이 없이 오직 작품 그 자체로서 존재한다. 작품이 담고 있는 형태나 색채는 부수적인 것이다. 그가 사용하는 아날로그적인 암브로타입이 지닌 액체류의 물성과 가장 단단한 고체류인 유리의 물질성이 인화라는 과정에서 물이라는 순수한 액체를 만나 서로 밀어내고 결합하면서 스스로를 드러내도록 한다. 기계적인 카메라의 필연성과 아날로그의 우연성이 결합해 작가의 의도와 상관없이 행위의 결과물로서 얻어지는 장시간 노출의 사진은 시간의 중첩이자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알 수 없는 부드러운 모호함이 사진을 덮는다.

형식상 이들의 작업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이른바 반복과 겹침이라는 방식에서 남춘모의 작업은 별다르다. 그는 일정 넓이로 자른 광목천을 섬유강화수지(FRP, Fiber Reinforced Plastics)를 발라 건조시켜 ‘ㄷ’자 모양의 기본형태를 만든다. 그 후 이를 기본단위로 전후좌우로 이어 붙여 증식시켜 하나의 부조(Relief)같은 회화를 완성한다. 이렇게 만들어진 그의 작품은 멀리서 보면 매우 질서정연한 기하학적 질서를 지녀 매우 시각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가까이 가서 보면 각각의 단위가 서로 다른 모양과 질감 그리고 색을 가지고 있어 촉감적이다. 이렇게 서로 상반된 것이 하나가 되어 배경인 동시에 작품이 되어버린다. 여기에 빛을 받아 은은하게 번지듯 퍼져 나오는 각각의 단위가 만나면서 자아내는 명과 암 그리고 그 사이에서 변화하는 미묘한 중성적인 색은 울림을 넘어 여운이 된다. 따라서 그의 스스로를 드러내는 절대적인 명료함은 단순한 구조와 기계적인 정확한 기법을 뛰어넘는다.

## 스스로의 회화

조각가 J. 맥클라켄(John Harvey McCracken, 1934~2011)은 합판으로 만든 사각형 막대에 광택 페인트를 칠해 합판 고유의 질감을 철판처럼 다른 느낌으로 변모시킨다. 이처럼 한국의 단색 화가들은 그림의 바탕이 되는 지지체로서의 평면을 전혀 다른 새로운 평면으로 치환시킴으로서 그림을 위한 지지체가 아니라 그림 그 자체를 또 다른 지지체로 탈바꿈시킨다. 마치 페인트로 합판을 철판처럼 만들어 버리듯, 그림이 그려져야 할 지지체가 바로 지지체인 동시에 그림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은 그리기보다는 지지체를 가지고 또 다른 방식으로 존재하는 지지체 자체를 탐구한다. 그리고 지지체가 곧 작품이 되도록 한다. 하지만 그들은 최대한 작가로서 작품에 개입하는 것을 절제한다. 이렇게 단색조를 지향하는 작가들은 조건 또는 바탕이 아닌 존재로서의 평면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갖는다. 그들은 새로운 자신만의 '그리기'가 아닌 독특한 방식을 통해 평면으로서의 회화의 한계상황과 평면구조에 대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표출한다. 하지만 이런 독자적인 방법론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공통적인 것은 자연성이다.

이렇게 스스로 회화가 회화로 완성되어 가는 과정에 자신의 작품을 위임하거나 또는 방기하는 작가로는 윤형근, 정창섭, 김택상, 김근태등의 작업에서 잘 드러내지만 이런 특징을 가장 잘 보여주는 작가는 최상철이다. 최상철의 작업에 최상철은 없다. 그는 자신의 작품에 최소한의 개입만으로 작품을 만들어 낸다. 그는 역설적으로 그리지 않는 방식으로 그림을 그린다. 그의 작업은 우연과 우연의 중첩을 통해 작품이 스스로를 드러내면서 완성되도록 방임한다. 그래서 그의 작품은 스스로 그려질 뿐이다. 이렇게 그의 작업은 마치 구도의 방편처럼 작용한다. 그는 자신의 역할을 최대한 자제하면서 물감이 묻은 돌을 화면에 던져 구르도록 한다. 돌을 놓는 위치도 자신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동전을 던져 우연히 떨어진 그곳에서 돌은 구르기 시작한다. 이렇게 천 번의 행위를 반복해서 얻은 결과물이 그의 작품이 된다. 사실 욕심을 버리고 작가로서의 개입을 최소화하려는 것은 더 큰 욕심일 수도 있다. 욕망 덩어리인 인간에게 절제, 자제란 불가능한 일 인지도 모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불가능을 간단없이 시도한다. 그에게 천 번이란 스스로 정한 제한조건은 작가로서 작품의 조형적인 요소인 균형과 비례, 변화와 대비, 리듬, 통일등등의 조형적인 요소를 고려해 자신이 개입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장치이다. 물론 이런 경향은 그만의 전유물이 아닌 단색조 화가들의 각기 다르지만 공통된 특징이기도 하다.

그의 이러한 행위는 70년대부터 단색조회화에 천착해 온 작가들의 화두 중 하나였던 '무위자연'과 닮아있다. 자연에 거스르지 않고 순응하는 태도를 의미하는 이 단어, 특히 '아무 것도 하지 않는다'라는 의미의 '무위'란 단어는 결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회화로 말하자면 아무것도 그리려고 하지 않는 가운데 마음 가는 데로 스스로 그렇게 그려진 것을 의미한다.

단색조회화를 조금 더 깊이, 긴 호흡으로 들여다보면 자연(自然)이라는 말이 우리나라의 생각이 난다. 특히 한국사회에서 쓰이는 원초적인 본질 또는 한자 그대로 "스스로 '자'에 그리할 '연'"이라는 의미를 보다 깊이 있게 들여다보고 그 의미를 헤아려 보면 단색조의 깊은 사유의 세계에 도달 할 수 있다. 물론 단색조 회화가 서구의 미니멀리즘이나 개념미술에서 외형적인, 형식적인 유사성을 찾아볼 수도 있지만 이들 한국의 70년대 회화가 지닌 특성상 화면과 화면위에 그려진 또는 행위의 결과, 산물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화면과 일체가 된, 화면이 되어버린, 지지체에 올려진 물감과 물감을 올리는 행위가 하나의 질료로 지지체로 환원된다는 점에서 형식적으로는 미니멀이나 개념미술보다 되려 쉬포르 쉬파스(Support Surface)와 맥이 닮아있는 것처럼 보인다.

## 결론을 대신해서

이렇게 크게 보면 단색조 회화로 정리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소위 '집단개성'이란 말로 규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들은 소위 작업의 과정을 중시하며 스스로의 개입을 자제 또는 절제하려는 태도로 작업에 임하고 있다. 또한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보이는 것 너머의 것이 더욱 중요한 작품들이다. 또한 보이는 색이나 질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화면의 떨림이나 울림과 보는 이의 마음이 공명을 이루기를 원한다. 물론 이처럼 그들의 작업은 같지만 다르며, 다른 듯 같기도 하다. 하지만 이들의 작업은 같은 만큼 다르다. 찬찬히 들여다보면 그 다름의 근원은 작가들의 관심의 비중이 다른 때문이다. 이렇게 작가들의 각기 '다름'은 스스로의 개성이며 단색조 회화에 대한 스스로의 입장과 생각이 다른 때문이다. 이렇게 그들은 하나의 그릇에 담

겨있지만 그렇다고 '하나'로 단정 짓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하지만 한편으로 이들을 묶어주는 키워드들이 있다. 그러나 그 공통점의 비중이 작가의 작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그들의 작업은 스스로 빛을 발한다. 그들의 작업 즉 단색조 회화의 유의미한 특징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 가. 퇴적, 시간과 시간성

모노크롬 회화 즉 단색조회화는 한국에서 1970년대의 주류미술로 자리를 잡았다. 오늘날도 한국현대미술의 대표적인 경향으로 인정받는다. 이들 단색조회화는 물질의 비 물질화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는 평가를 받는다. 여기서 비 물질화란 "물질을 무화된 구조로 이끌어나가는 정신성"이라고 말하면서 서구의 모노크롬 회화나 미니멀 아트와 차별화를 시도한다. 바로 국제적인 조형양식과 한국의 독자적인 미술양식을 창조했다는 이식과 착종의 논리이다. 그리고 여기에 의하면 서구의 모노크롬이 사물 그 자체로의 환원이라는 개념으로 나아갔다면 우리 단색조회화는 비 물질화를 통한 정신성을 추구하고 이를 실현했다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한국의 단색조회화는 평면이라는 회화의 기본조건으로 환원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정신성으로 접근함으로써 단색조회화는 평면이라는 구조적 형식과 동양적 정신성이라는 내용의 문제를 동시에 해결함으로써 자주성과 독창성을 획득하고자 했다.

하지만 회화에 있어서 정신성이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또 그 정신의 실체는 무엇이며 물질을 통해 물질을 극복함으로써 정신성을 구현되고 언어지는 것일까. 여기서 물질은 정신성의 대척점에 있는 용어일 뿐 물질을 극복하면 정신성이 구현된다는 이야기는 논리의 비약이다. 그런 점에서 이상의 결론은 지역적이며 민족적인 범주를 벗어나지 못한다. 물질 중심의 서양과 정신중심의 동양이라는 이분법적 사고의 결과물에 지나지 않는다. 이는 객관의 리얼리티를 추구했던 서구의 미술과 달리 동양예술에서는 주객이 융합되는 체험을 그려내는 원칙으로 삼았고, 여기에 작가의 고결한 인품이 더해져야 훌륭한 작품이 나온다고 믿었던 결과이다.<sup>9)</sup>

따라서 한국의 단색조 회화란 색의 문제가 아니라 작업에 임하는 태도의 문제이다. 또 서양의 모노크롬화는 단숨에 한 가지 색을 칠하면 완성되지만 한국의 단색조 회화는 시간을 쌓아가는 듯 행위의 반복이 중요하다. 그리고 이런 반복되는 행위를 통해 스스로 현재 하고 있는 행동을 인식하지 못하는 상태, 즉 일정한 수행의 반복을 통해 스스로를 비워 내는 과정의 산물인 것이다.

하지만 이는 서구미술과 동아시아의 미술이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사실을 간과한 결과이다. 동서양의 풍경화를 비교해 보면 그 차이가 확연하게 드러난다. 서양 풍경화는 마치 창밖 풍경을 바라보듯 거리를 두고 그린 그림이라면 동아시아의 풍경화인 산수화는 그림의 대상이 되는 풍경 속에 들어가 앉아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 보는 그림이다. 따라서 서구의 모노크롬은 그리는데 이도 보는 이도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고 있다. 결국 서구의 회화는 사물의 리얼리티를 통해 사물의 본질을 보여주거나 자신 또는 자아의 실체를 드러내고자 했다면 동아시아와 한국의 회화는 일관되게 대상과 작가가 융합되고 그림과 관객이 일체화하는 체험을 그려내고자 했다. 또한 동양의 풍경화는 이상향인 무릉도원을 그린 가상현실의 세계이다.

서구의 모노크롬 회화가 회화의 본질 또는 근원적인 실체에 질문과 이에 대한 답이라면 동아시아의 전통은 고정불변의 실체는 없다는 것이다. 모든 존재와 사물과 현상은 유동적이며 변하는 것으로 따라서 본질을 추구하기보다는 과정에 있는 진행형이다.

따라서 한국의 단색조회화는 모노크롬이나 미니멀 한 회화와 달리 본질을 추구하기보다는 꾸준히 과정을 탐색한다. 따라서 작품은 결과물이나 완성품이 아니라 지속되는 과정에서 잠시 휴지기에 있는 것이다. 따라서 단색조회화는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를 향해서 움직이는 것이며 시간에 따라 움직이고 운동에 따라 변화하는 과정의 산물이다. 따라서 단색조회화는 사물의 본질이나 자아의 정체성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작품과 작가, 작품과 관객, 작가와 관객의 관계이다. 결국 단색조회화는 시간이 경과하면서 행위의 흔적이 중첩되고 퇴적된 평면이자 시간의 축적이자 현재라는 한 순간에 존재하는 실존인 동시에 찰나인 것이다.

9) 오병남 외, 『미학으로 읽는 미술』(주) 월간미술, 2007 p. 186

## 나. 텅 빈 충만

따라서 한국의 단색조회화는 영원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움직이는 것이며 변화하는 것이다. 그 변화의 과정 속에서 잠시 우리 눈에 드러나는 존재인 셈이다. 그리고 작품은 그 존재의 순간을 박제화함으로서 작품으로 드러난다. 매우 이율배반적인 셈이다. 존재하되 존재하지 않는 영원하지만 순간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 때문에 서구적인 관점에서 보면 동아시아의 전통회화나 단색조회화는 모두 회화의 범주에 들어갈 수 없다. 하지만 이런 단색조회화가 한국인의 정서를 반영하고 사유공간에 존재한다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과정으로서의 예술을 이해해야만 한다. 물론 서구의 프로세스아트(Process Art)와는 형식적인 측면에서 유사하지만 과정의 한 단면 또는 과정의 순간을 보여준다는 점에서는 다르다.

이런 문화적 차이로 인해 서구의 사고로는 '텅 빈 충만'이라는 역설적인 말을 이해 할 수 없다. 비워야 채울 수 있다는 말은, 떠나야 돌아올 수 있다는 말과 같다. 가득 차 있는 경우 어떤 것도 담을 수가 없다. 넘치기 때문이다. 그래서 새로운 것을 계속 담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내다 버려야 한다. 마치 용량이 가득 찬 컴퓨터 하드에 새로운 문서나 파일을 저장하려면 필요 없는 것들을 삭제해야 하는 것처럼 말이다.

이런 때문에 한국의 단색조회화는 합리적이고 개념적이기 보다는 관념적이다. 중요한 것은 마음이고 생각이며 감성이기 때문이다. 동아시아에서 합리적이란 관념 속에 존재하는 것이다. 모든 것은 정지한 것이거나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하는 과정으로 현재 진행형이다. 그래서 움직이고 변화한다.

## 다. 수신의 예술

이런 그의 인상을 염두에 둔 채로 다시 한국의 달항아리로 돌아가 보자. 달항아리는 움직이기 않지만 움직인다. 모양도 시시각각 변한다. 왜냐면 보는 사람이 서 있는 방향에 따라 모양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이는 달 항아리가 도자기임에도 불구하고 좌우 대칭이 맞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다. 또 달 항아리의 유백색 피부는 자연광 아래서 보는 것과 인공조명 아래서 볼 때와 그 색이 다르다. 흐린 날의 백색과 맑은 날의 백색은 완연하게 다르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달 항아리가 놓인 환경과 조건에 따라 또 보는 이의 기분과 마음에 따라 다른 표정을 짓는 것을 알 수 있다. 말 그대로 천의 얼굴을 가진 셈이다.

이렇게 달 항아리에서 보는 순간순간의 시간의 절단면을 경험할 수 있듯이 한국의 모노크롬 회화도 시간의 단면을 보여준다. 달 항아리의 형태가 주는 매력은 크다는 것이다 크고 우람해서 무언가 풍성한 느낌, 당당한 느낌을 준다. 비록 속이 비었을망정 가득하다. 여기에 약간은 일그러진 찌그러진 모습이 그 당당함을 상쇄시켜준다. 너무 잘 난 것 같지만 빈틈이 있어 여유로움이 묻어난다. 슬쩍 기대거나 어리광을 부려도 받아 줄 것처럼 넉넉하다.

이런 달 항아리의 모양은 도공이 만든 것이 아니다. 달항아리가 스스로가 만든 것이다. 너무 커서 둘로 나누어 이어 붙이면서 스스로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약간 찌그러진 것이다. 이렇게 만들어진 도자기가 가마에 들어가 구워지면서 다시 줄어든다. 즉 만든 이의 마음대로 달 항아리의 모양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도공의 힘으로 어떻게 해 볼 도리가 없는 순간이 도래하는 것이다. 이때 달 항아리는 불과 만나 스스로 자신의 모양을 결정짓는다. 사람이 만들고 자연이 완성시키는 셈이다. 이렇듯 한국의 단색조회화도 시간이 경과하면서 작가의 행위 또는 일이 지지체 위에 축적되면서 스스로 자신의 모습을 갖춰간다.

여기에 비어있는 달 항아리에 무엇을 담을 것인가는 순전히 도공의 마음이나 필요에 의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보고 쓰는 이의 몫이다. 달 항아리에 무엇이 담겨있는 지 궁금해 하고 상상하는 것도, 무엇을 담을 것인지 곰곰 생각하는 것도 도공의 몫이 아니라 보는 이의 몫이다. 이는 한국의 단색조회화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단색조회화에서 색은 단순하게 어떤 것을 상징하거나 의미하는 일반적인 회화의 색과는 다른 색이다. 마치 냉면 육수처럼 밍밍하고 무미한 맛같은 색이다. 맛이 없는데 맛이 느껴진다는 것은 어찌 들으면 말장난처럼 들릴지도 모른다. 하나 단색조회화의 묘미는 바로 여기에 있다. '구멍'이 없이 '본성'을 중시하는 작가들의 태도는 우리 전통문화를 구성하고 있는 불교의 '색즉시공'과 유교에 바탕을 둔 '선비정신' 그리고 노장 사상의 '무위자연' 등의 차집합과 같다. 이들에게 그림 그리는 일 즉 작업은 스스로의 인격을 닦는 수신의 방편이란 점에서 공통된다.

# 텅 빈 충만

한국미술의 물성과 정신성

강영순 Khang Young-Soon

권대섭 Kwon Dae-Sup

김근태 Kim Keun-Tai

김덕한 Kim Deok-Han

김아타 Atta Kim

김창열 Kim Tschang-Yeul

김태호 Kim Tea-Ho

김택상 Kim Taek-Sang

남춘모 Nam Tshun-Mo

박서보 Park Seo-Bo

윤상렬 Yoon Sang-Yuel

윤형근 Yun Hyong-Keun

이진영 Lee Jin-Young

이진우 Lee Jin-Woo

정상화 Jung Sang-Hw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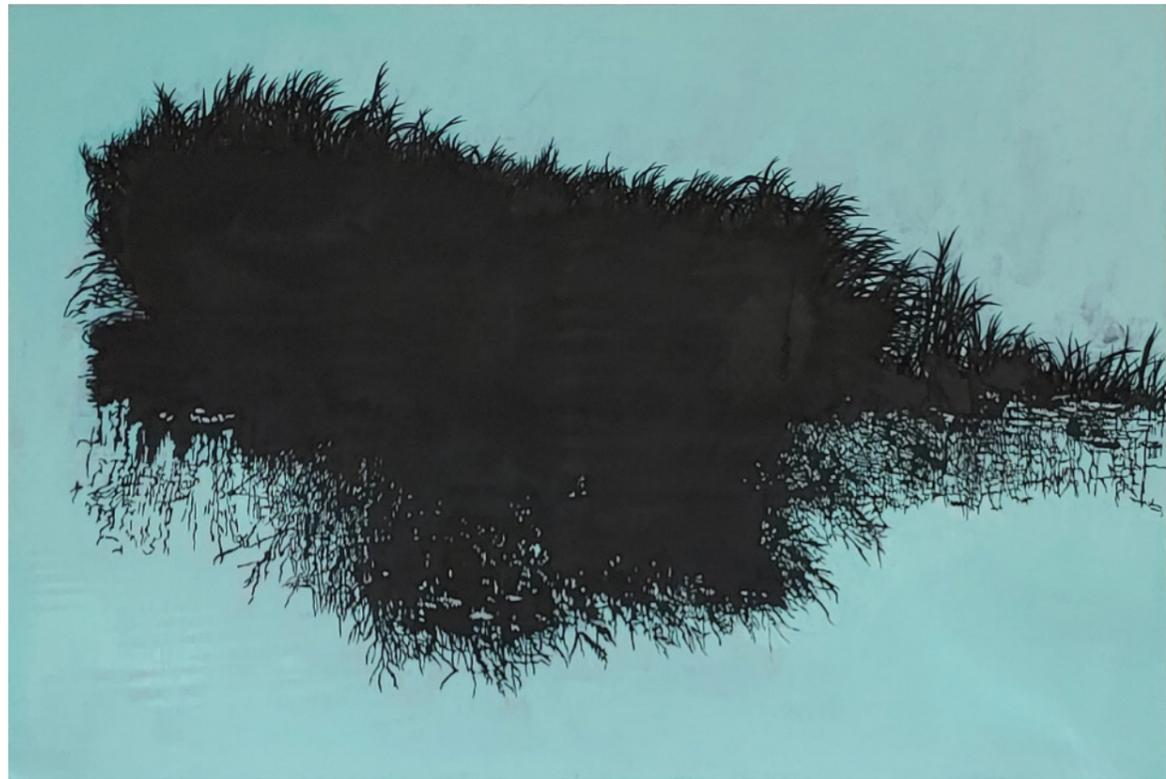
정창섭 Chung Chang-Sup

최병소 Choi byung-S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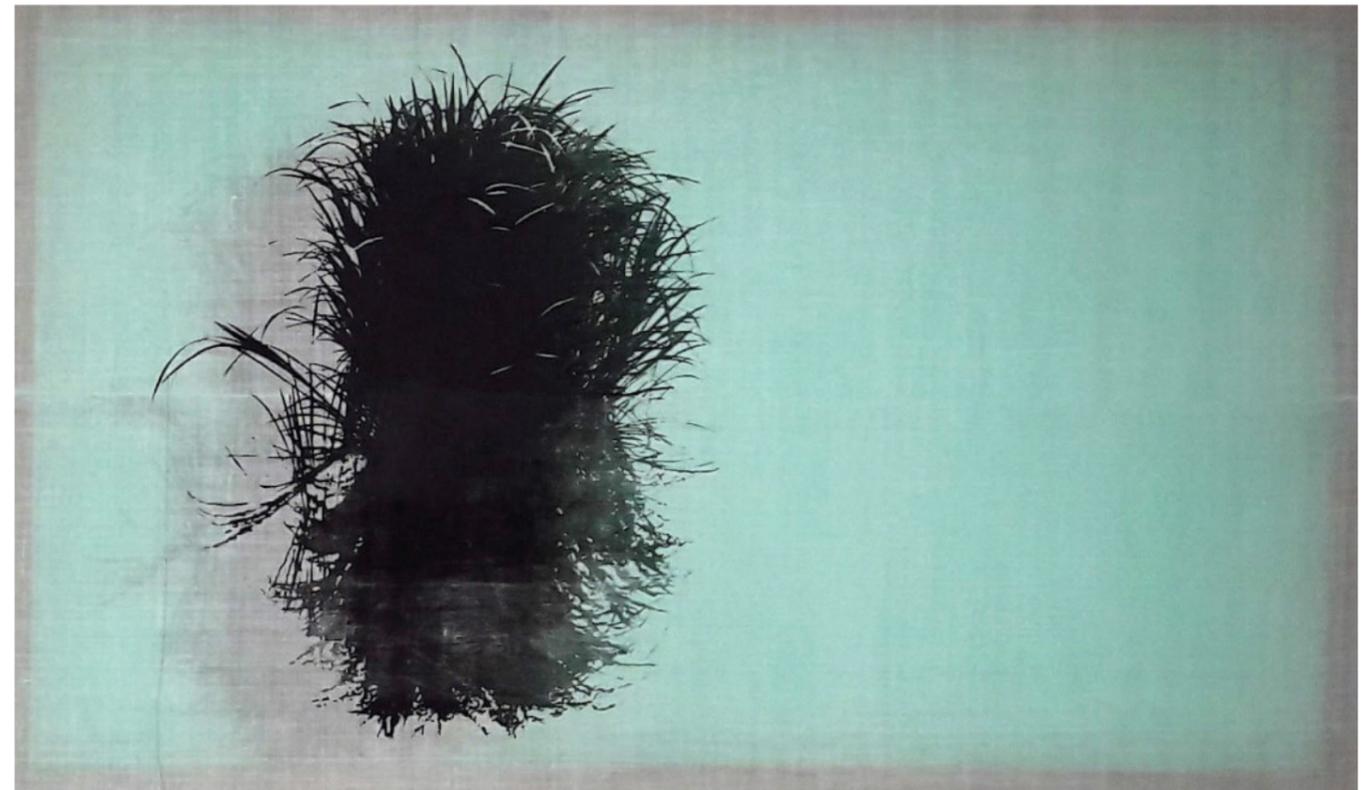
최상철 Choi Sang-Chul

# Khang Young-Soon

강영순



**Beside a river**, 2017  
Acrylic and ink on paper,  
78x116cm



**bush**, 2017  
silk screen and acrylic on ramie fabric, embroidery,  
112x190cm

# Kwon Dae-Sup

권대섭



달 항아리, 2018  
Ceramic  
51×54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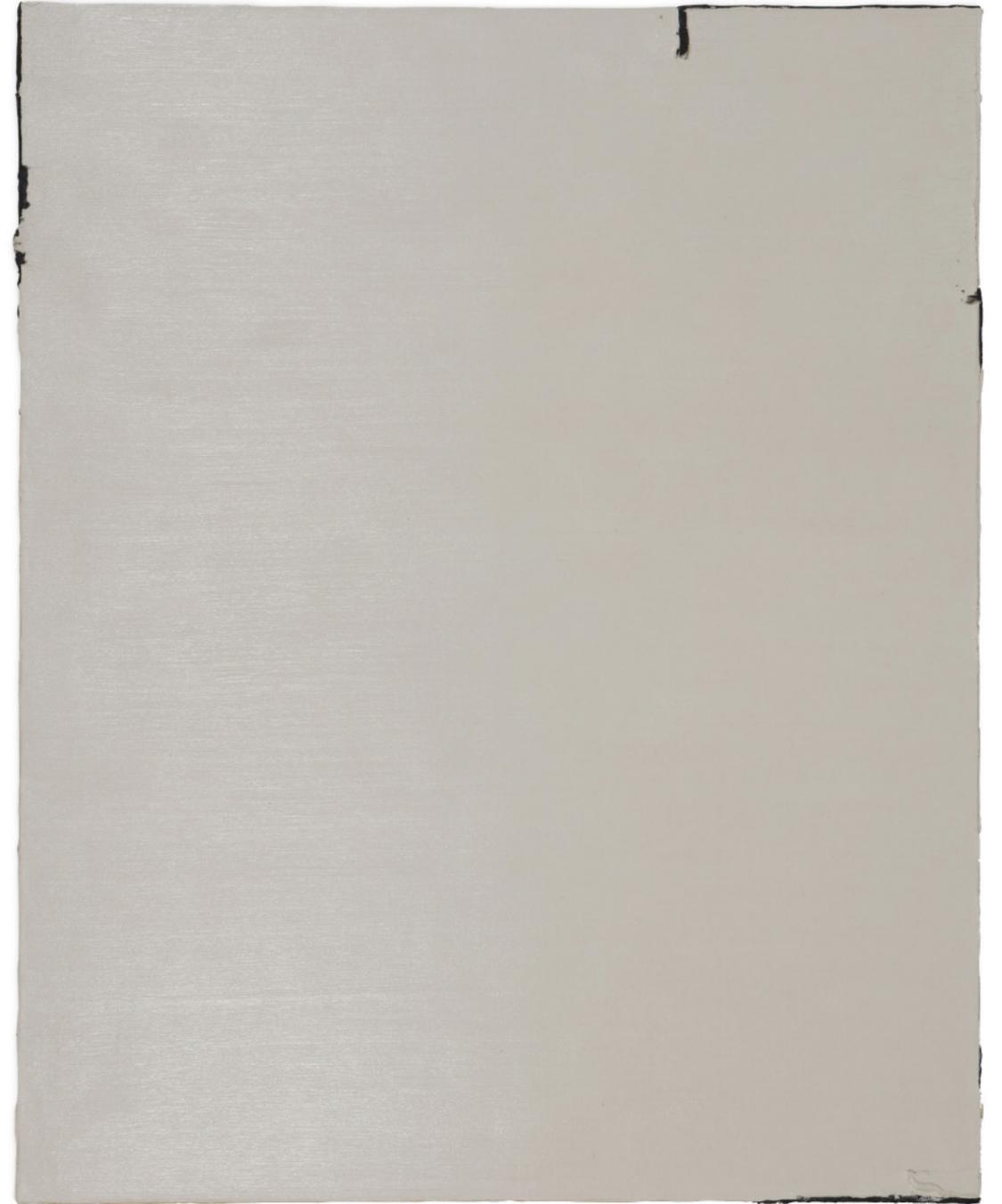
달 항아리, 2018  
Ceramic  
52×56cm

# Kim Keun-Tai

김근태



Discussion2018-36, 2018  
Oil on canvas  
162x130.3cm



Discussion2018-94, 2018  
Oil on canvas  
162x130.3cm

# Kim Deok-Han

김덕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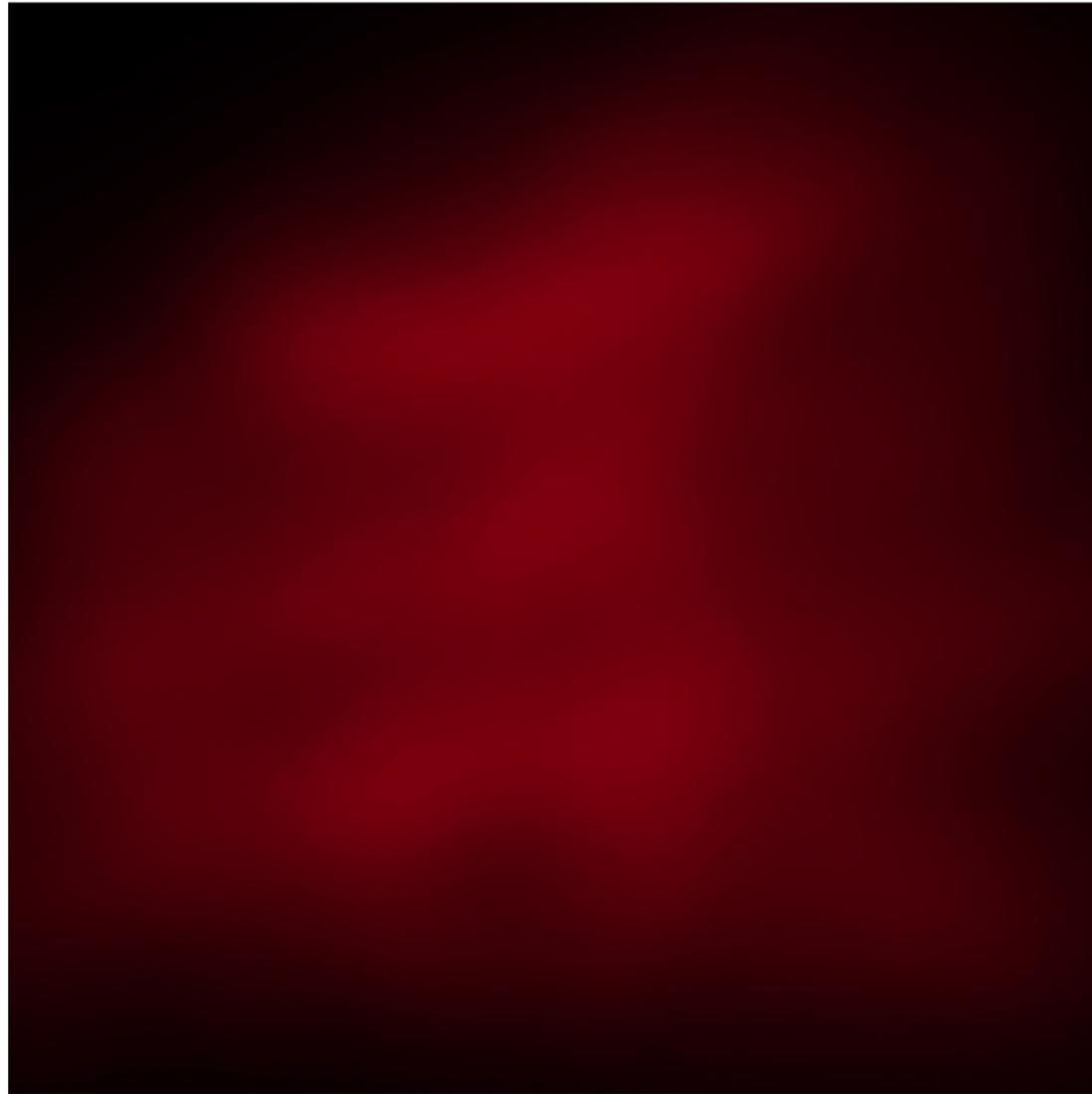
Overlaid series No.1912, 2019  
패널에 옷칠  
90x90cm



Overlaid series No.1913, 2019  
패널에 옷칠  
90x90cm

# Atta Kim

김아타



ON-AIR Project Analects of Confucius(논어) 15,817, 2010/2014  
사진 디지털 크로모제닉 컬러프린트 Ed. 6/33  
60.96x60.96cm, 작가소장



ON-AIR Project, Mark Rothko 129, 2010/2014  
사진 디지털 크로모제닉 컬러프린트 Ed. 6/33  
44.07x60.96cm, 작가소장

# Kim Tschang-Yeul

김창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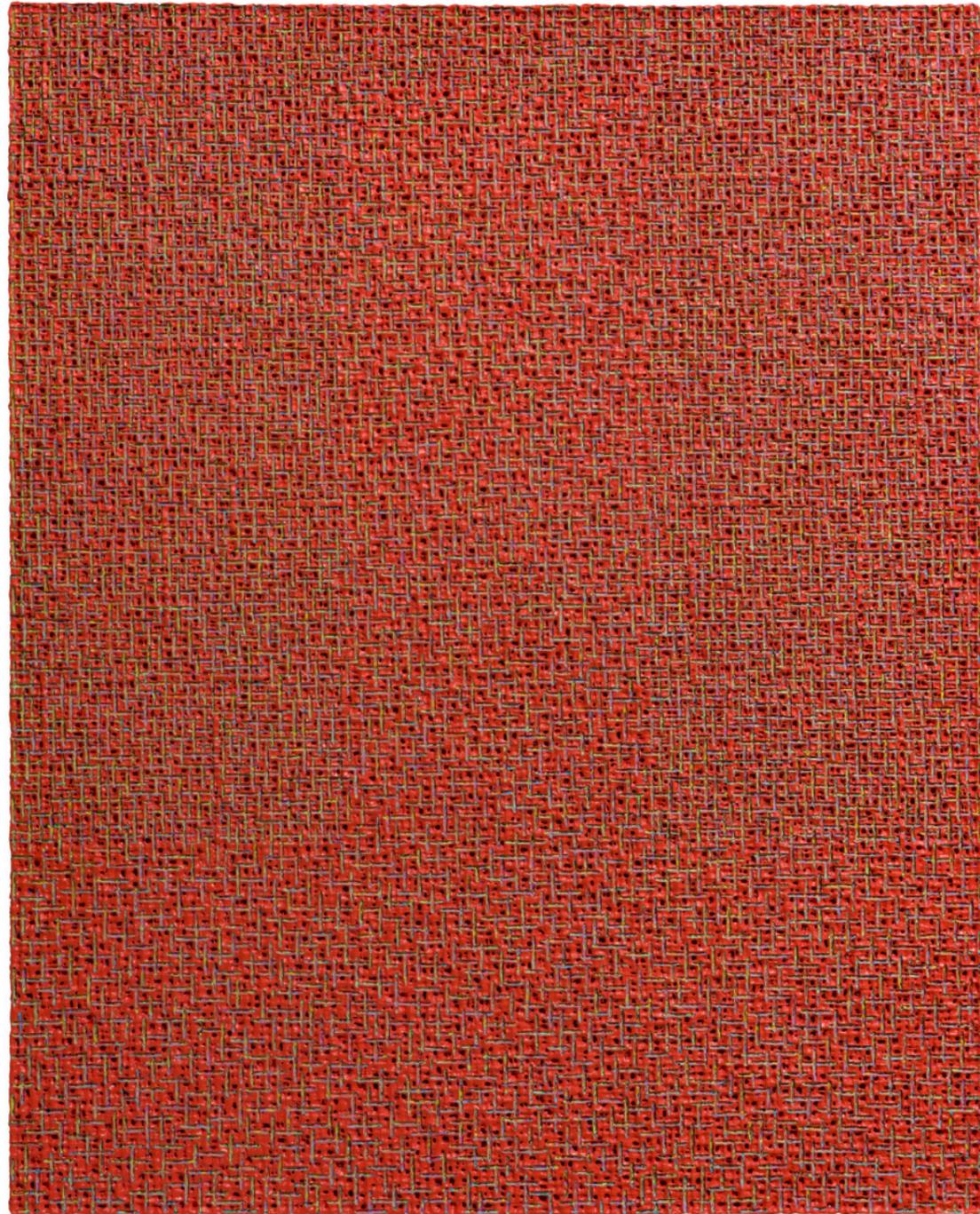
물방울, 2019  
Acrylic on canvas  
195x131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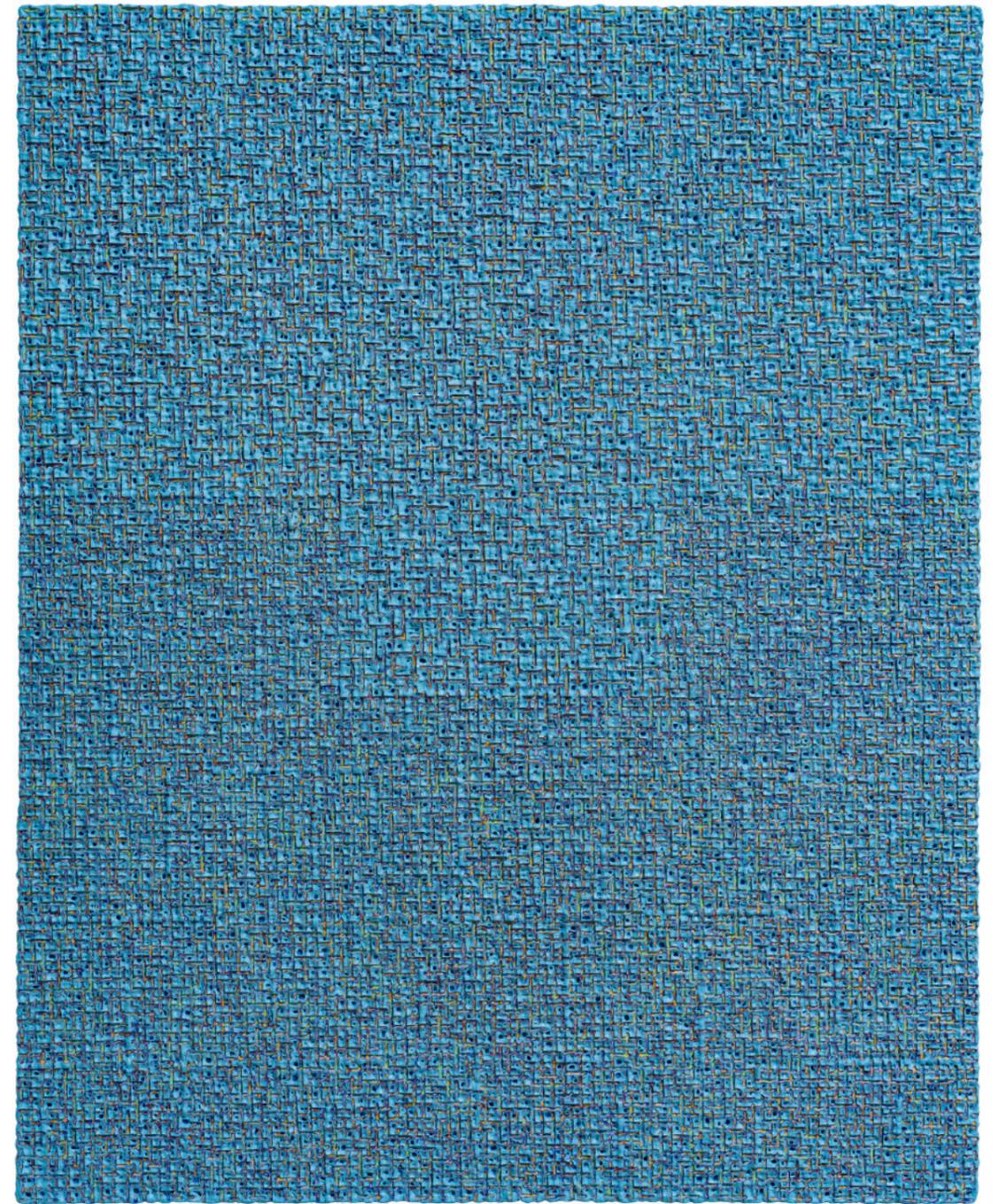
물방울, 2015  
Acrylic on canvas  
130x160cm

# Kim Tea-Ho

김태호



Internal Rhythm 2019-13, 2019  
Acrylic on canvas  
163x131.5cm



Internal Rhythm 2019-15, 2019  
Acrylic on canvas  
163.5x131.5cm

# Kim Taek-Sang

김택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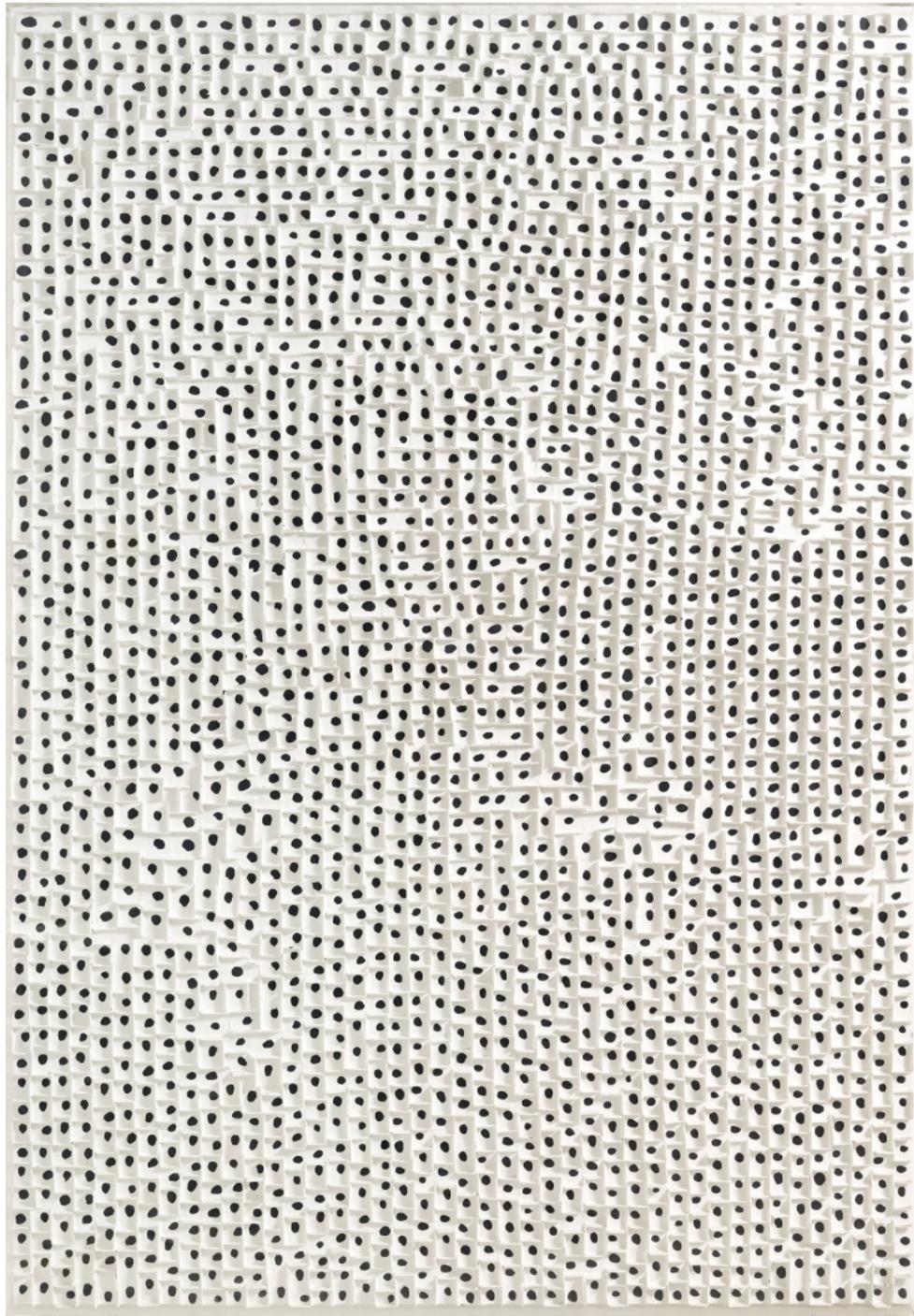
**Breathing light-jade green, 2017**  
Acrylic on canvas  
177x131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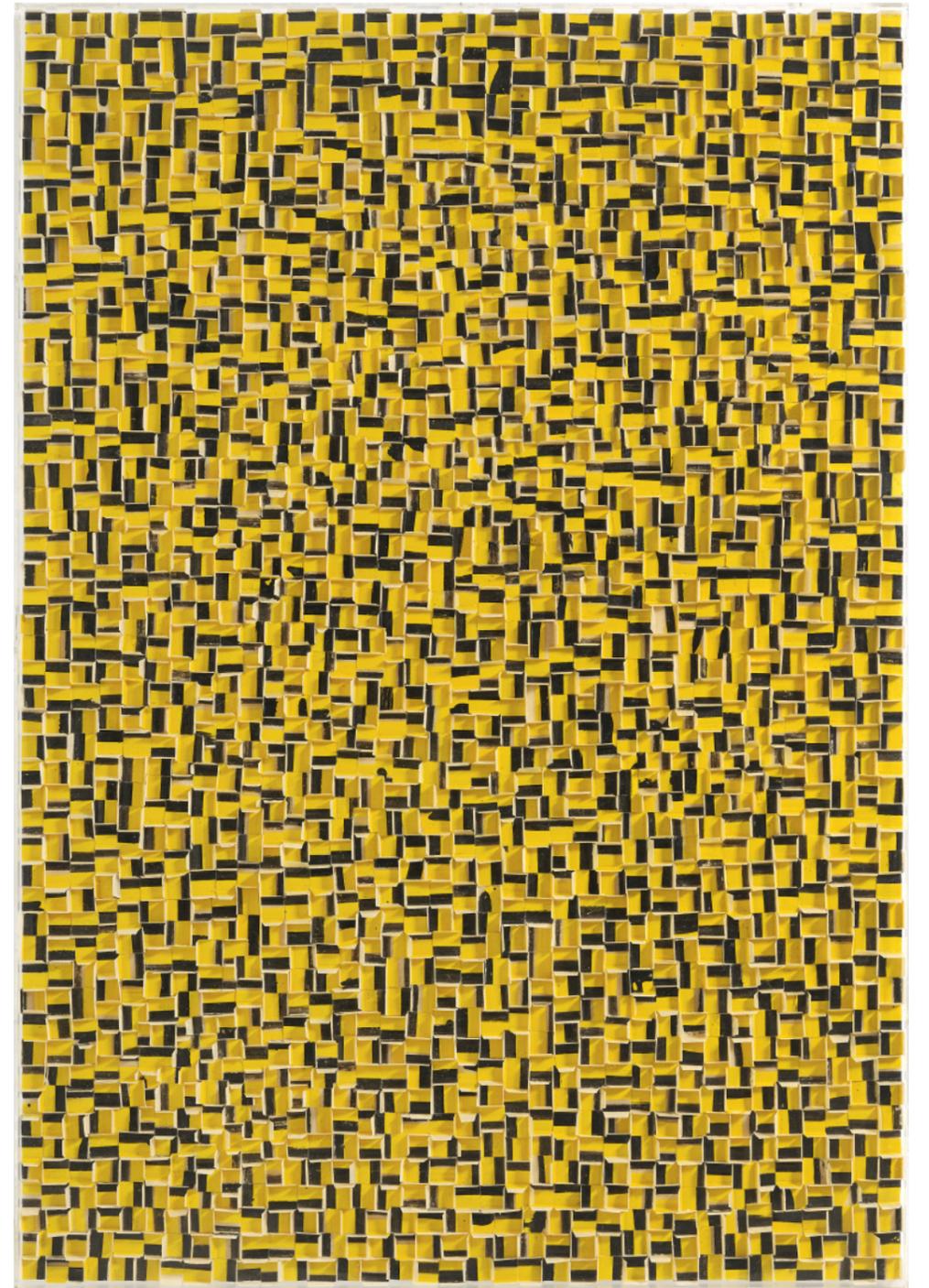
**Breathing light-Deep violet 20172, 2017**  
Water and acrylic on canvas  
189x101cm

# Nam Tshun-Mo

남춘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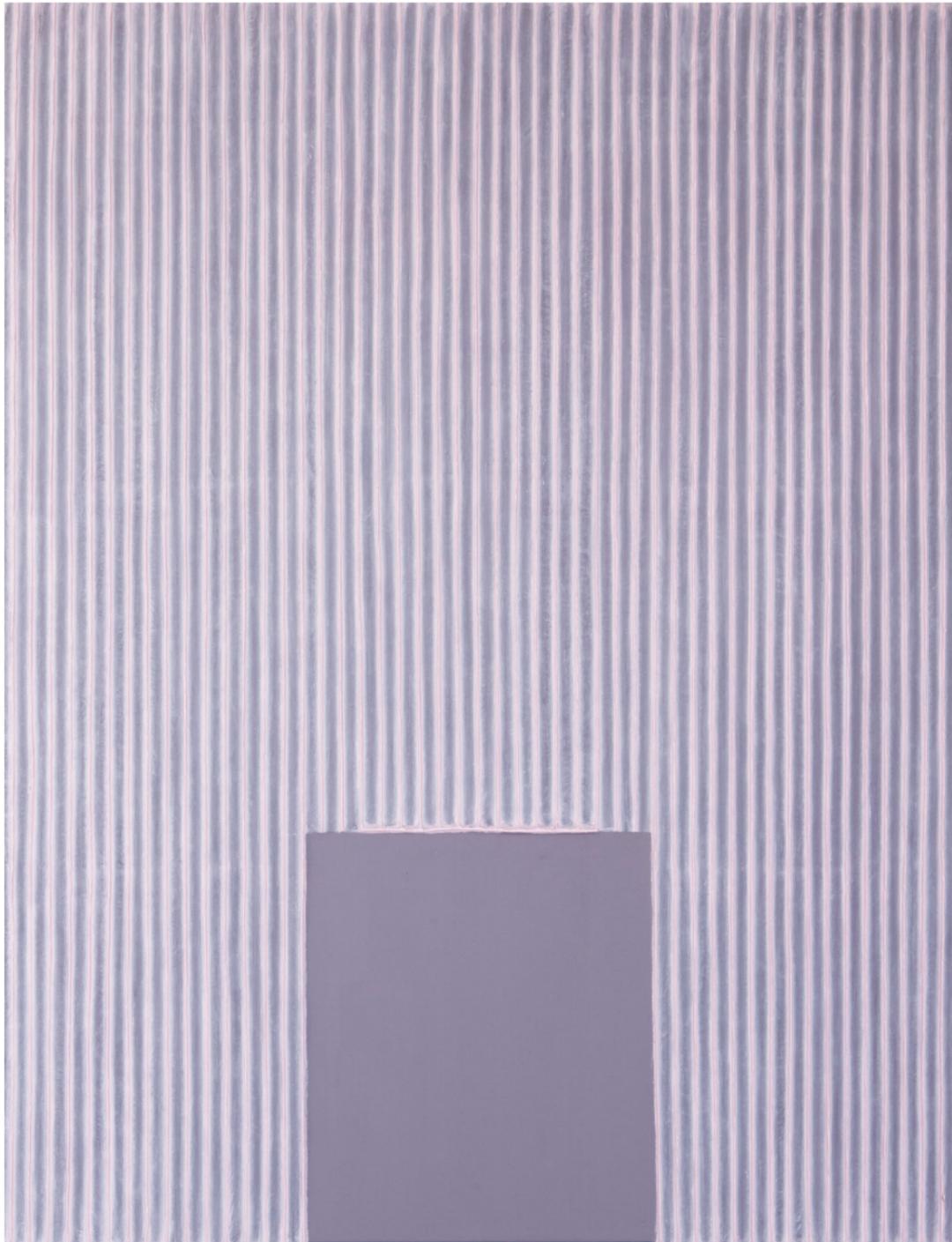
Stroke Line, 2007  
Mixed media on canvas  
145x100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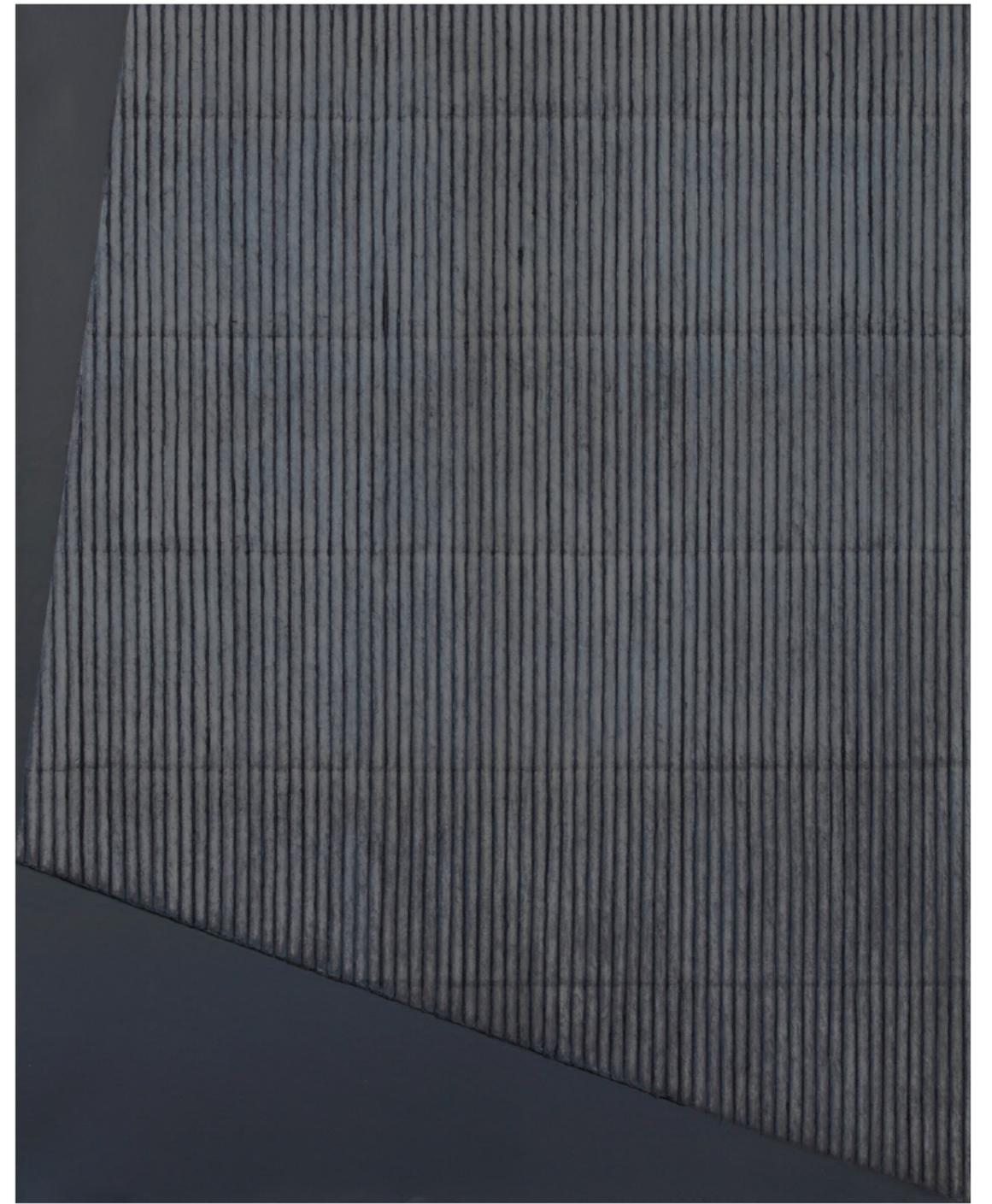
Stroke Line, 2007  
Mixed media on canvas  
145x100cm

# Park Seo-Bo

박서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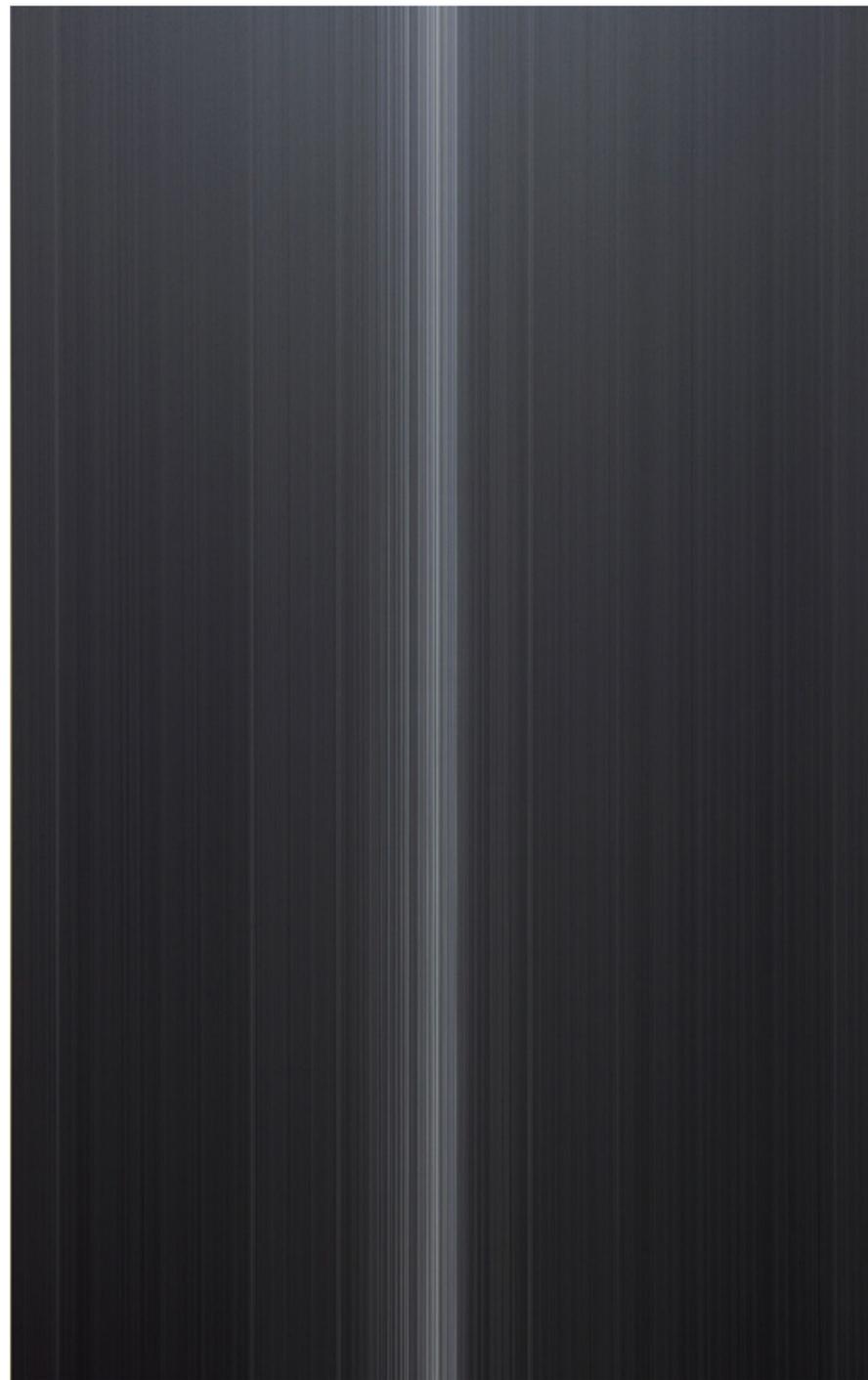
Ecriture(描法)No.140611, 2014  
Mixed media with korean paper on canvas  
91x70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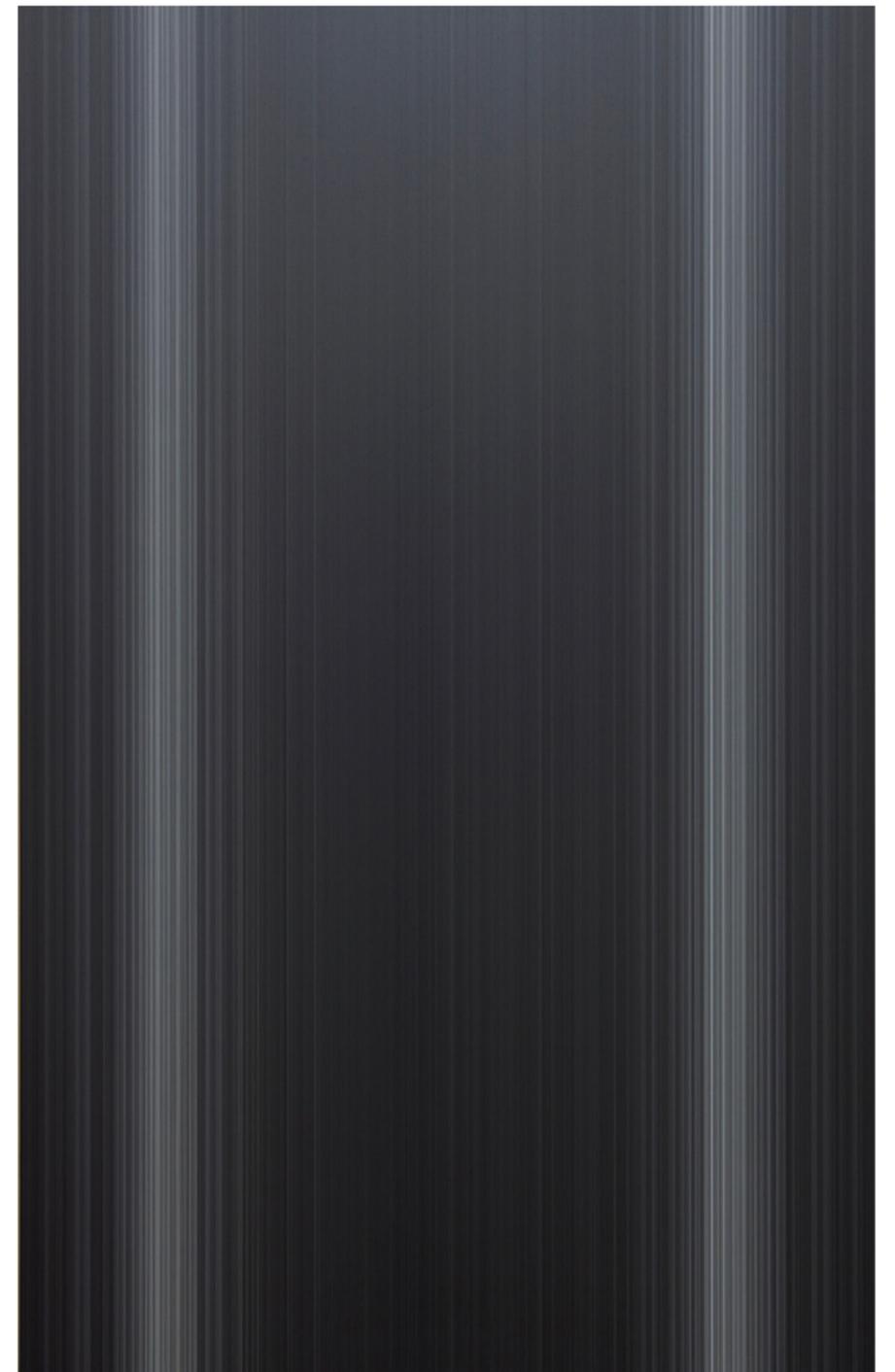
묘법No.990214, 1999  
캔버스 위에 혼합재료  
162.2x130.3cm

# Yoon Sang-Yuel

윤상열



**Silence**, 2018  
Sharp pencil on paper and Digital on Acrylic  
146x92.5cm



**Silence**, 2018  
Sharp pencil on paper, Digital printing on Acrylic  
146x92.5cm

Yun Hyong-Keun

윤형근



untitled, 1993  
Oil on linen  
91x116cm

# Lee Jin-Young

이진영



**Unhwamong**, 2019  
Inkjet Print on Hanji Paper  
198x122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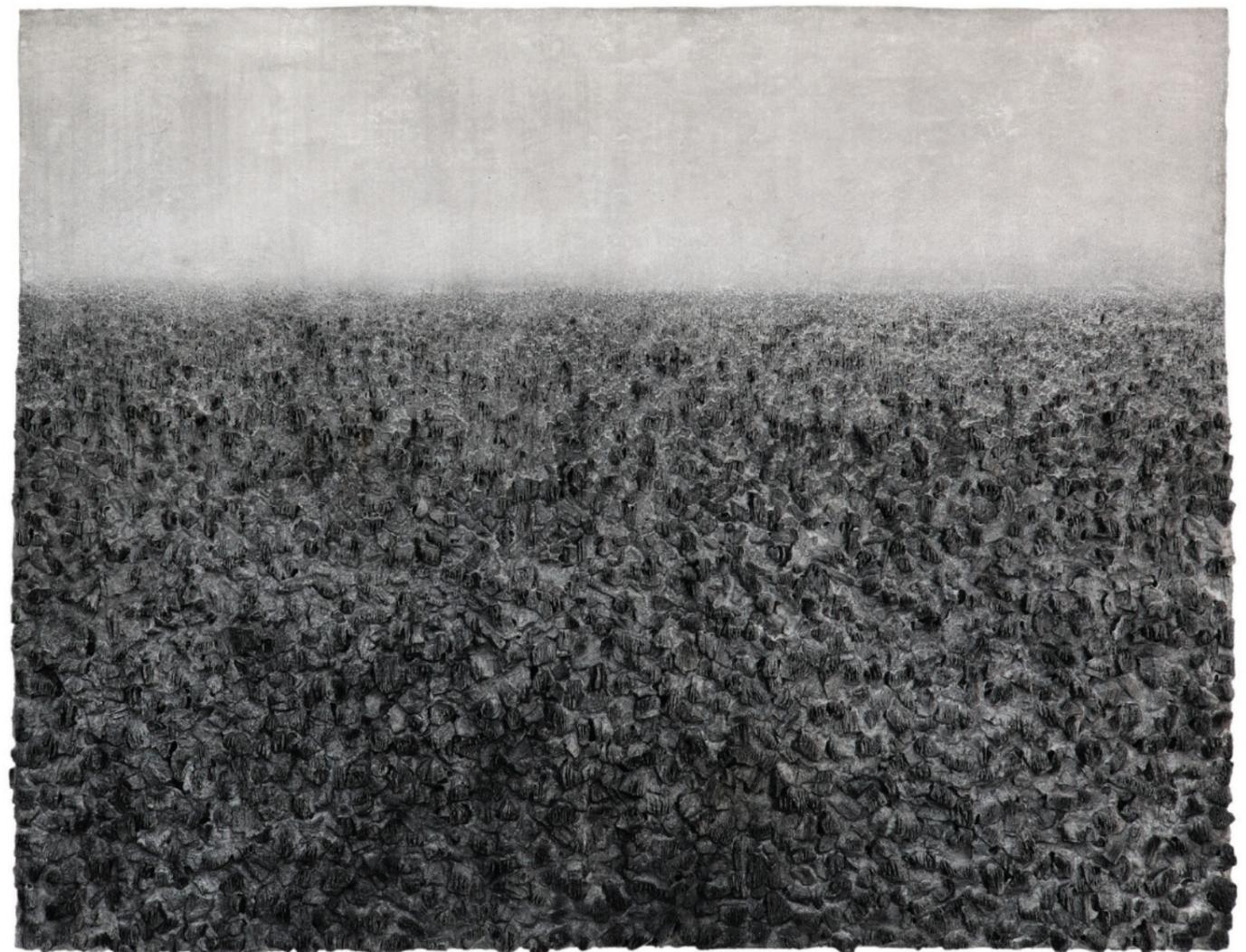
**Unhwamong**, 2019  
Inkjet Print on Hanji Paper  
198x122cm

# Lee Jin-Woo

이진우



Non-title 2019, 2019  
Mixed Media with Hanji on Canvas  
75x56cm



Non-title\_19-ac-06, 2019  
Mixed Media with Hanji on Canvas  
130x168cm

# Jung Sang-Hwa

정상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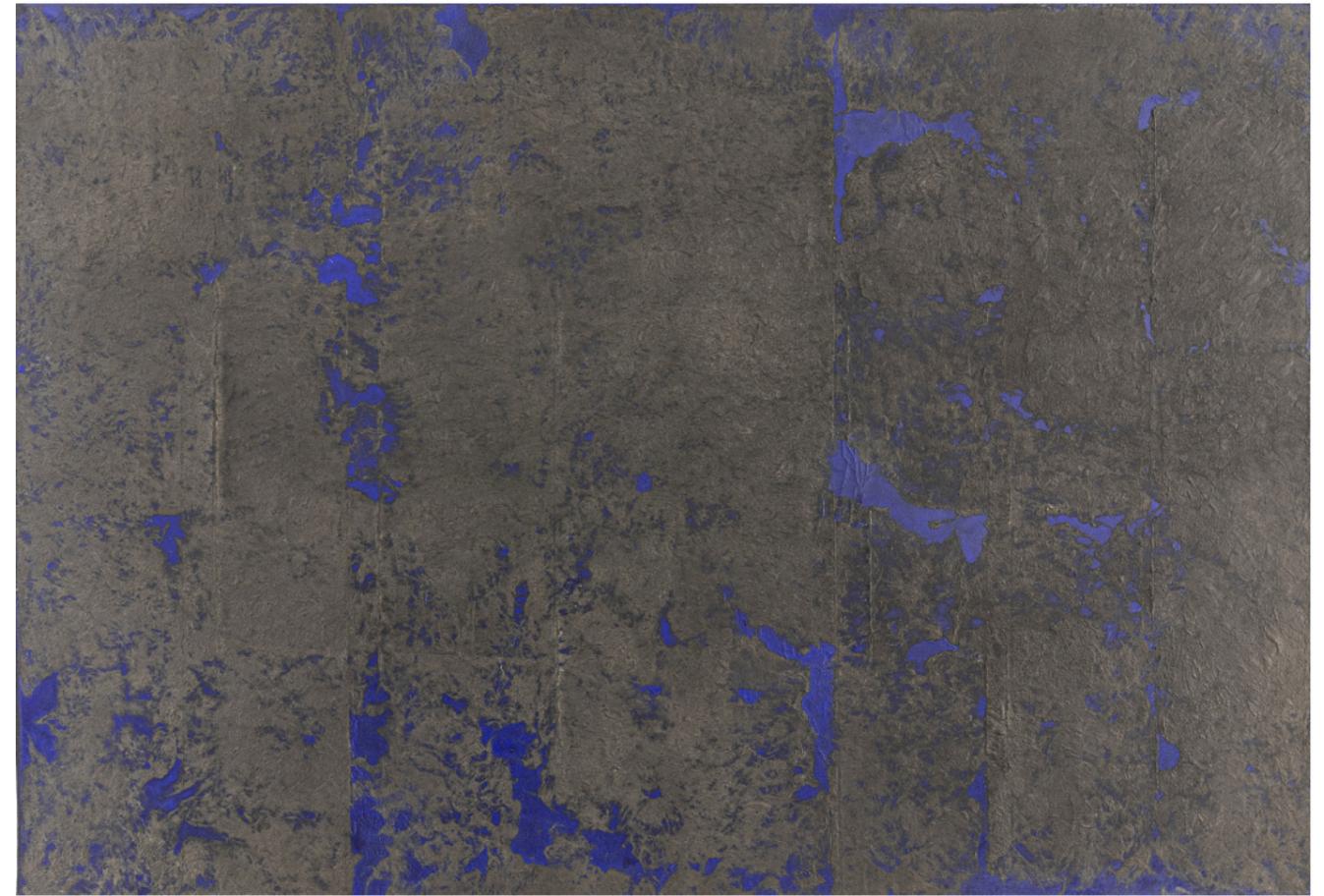
**untitled**, 1978  
Frottage on Korean paper  
162x93cm

# Chung Chang-Sup

정창섭



묵고 Meditation No.23307, 2003  
Tak Fiber on cotton  
72.7x60.6cm



묵고 No.91202, 1991  
Tak Fiber on cotton  
112.1x162.2cm

# Choi byung-So

최병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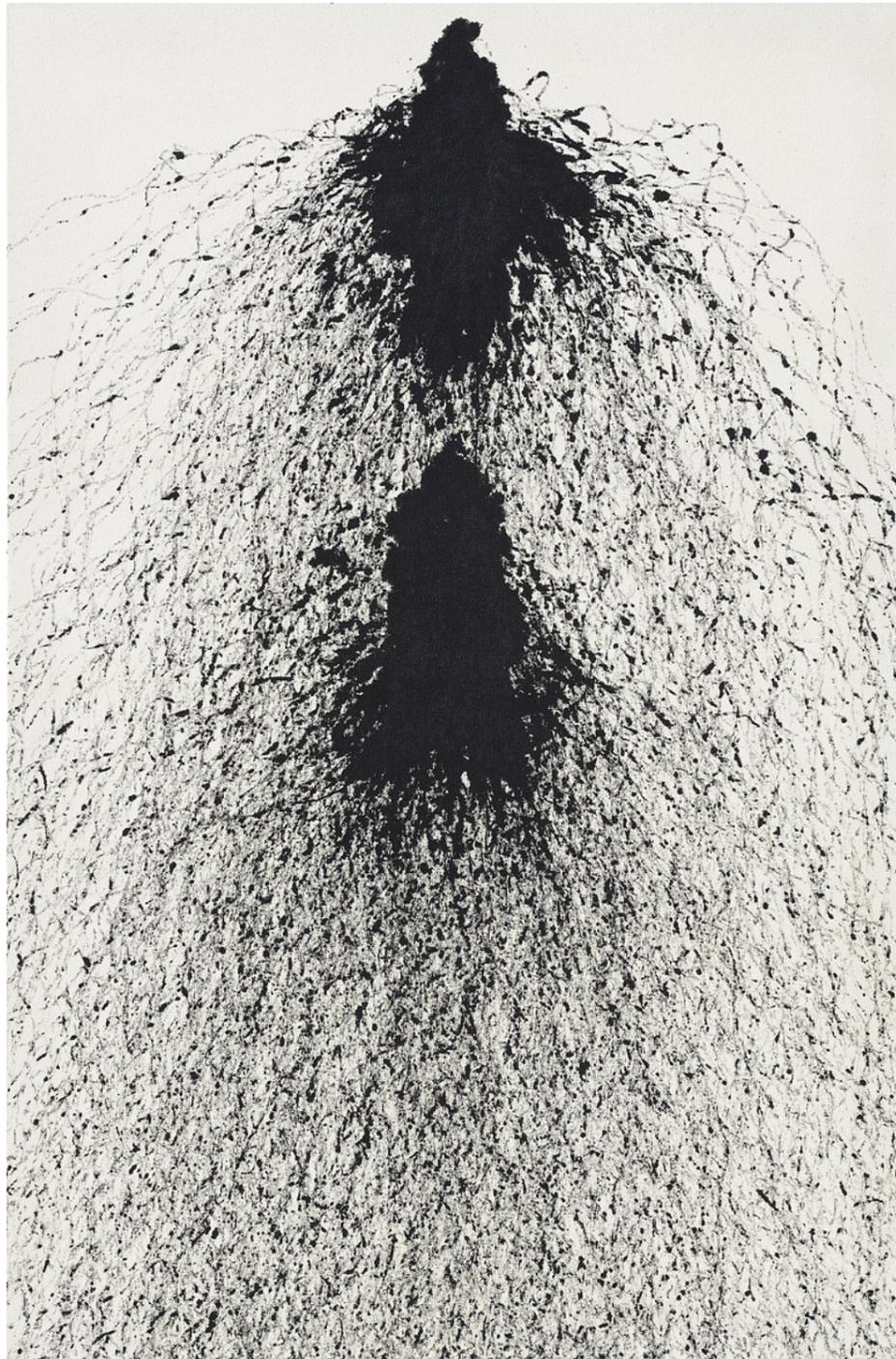
0120316 Untitled, 2012  
newspaper, ballpointpen, pencil  
54x81x1cm



0190911 Untitled, 2019  
newspaper, ballpointpen, pencil  
54x81x1cm

# Choi Sang-Chul

최상철



無物13-9, 2013  
Acrylic on Canvas  
97x145.5cm



無物14-16, 2014  
Acrylic on Canvas  
130.3x162.2cm

# Biography

## 작가약력

## 강영순

Khang Young-Soon

1959년 서울 출생

### 학력

1982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서양화전공 학사  
1984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대학원 서양화와 석사  
1994 독일 슈투트가르트 미술대학 대학원 석사

### 개인전

1986 관훈갤러리, 서울  
1988 일갤러리, 서울  
1990 소나무갤러리, 서울  
2017 영은미술관, 경기도 광주

### 단체전

1983 서울국제드로잉전, 미술회관, 서울  
1984 서울현대미술제, 미술회관, 서울  
1985 양대광당전, 국립현대미술관, 서울  
1986 한국현대미술 31인의 여류전, 관훈갤러리, 서울  
1987 한국현대미술의 신자질, 나비스갤러리, 도쿄  
'87 청년작가 비엔날레, 국립현대미술관, 과천  
서울 요코하마 현대미술전, 아르코스모, 서울  
1988 한국 현대작가전, 멕시코 국립현대미술관, 멕시코  
1989 오늘날의 한국현대미술, 토탈미술관, 장흥  
1990 한국현대미술 55인의 여성작가, 토탈미술관, 장흥  
1992~1993 슈투트가르트 미술대학 정기전, 슈투트가르트, 독일  
1995 인간과 동물전, 사비나갤러리, 서울  
2019 한국-베트남 현대미술교류전 "같은 듯 다른, 다른 듯 같은"  
베트남국립미술관, 하노이  
2020 텅빈충만展, 박여숙화랑, 서울

### 레지던시

2017 영은미술관, 경기도 광주

## 권대섭

Kwon Dae-Sup

1972 - 1978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1979 - 1984 오가사와라 도예문 도자수학 九州 日本(나베시마가마)  
1998 한국예술평론가협회선정 98미술부문 최우수예술인

### 개인전

2020 권대섭 전, 박여숙화랑, 제주, 한국  
2019 권대섭 전, 박여숙화랑, 서울, 한국  
2018 회귀, 악셀베르보르트 갤러리, 앤트워프, 벨기에  
2015 악셀베르보르트 겨울 특별전, 악셀베르보르트 갤러리, 앤트워프, 벨기에  
공간갤러리, 부산, 한국  
2010 서미앤투스갤러리, 서울, 한국  
2005 동원화랑  
1979~2008 약 20회 개인전

### 단체전

2020 텅빈충만展, 박여숙화랑, 서울  
화랑미술제 coex, 박여숙화랑, 서울  
2019 화랑미술제 (박여숙화랑), 서울, 한국  
부산국제화랑아트페어 (박여숙화랑), 부산, 한국  
KIAF (박여숙화랑), 서울, 한국  
대구아트페어 (박여숙화랑), 대구, 한국  
공예트렌드페어 (박여숙화랑), 서울, 한국

2018 공예트렌드페어 (박여숙화랑), 코엑스, 서울, 한국  
대구아트페어 (박여숙화랑), 엑스코, 대구, 한국  
키아트 (박여숙화랑), 코엑스, 서울, 한국  
한국공예전: 기량의 예술, 강릉, 올림픽파크 라이브사이트, 강릉, 한국

2017 봄놀이 산, 꽃, 밥 展 - 2018 평창동계올림픽 기념 한식문화 특별전,  
국립민속박물관, 서울, 한국  
Moonstruck: TASTE at Artgen□ve, 팔레스포, 제네바, 스위스  
Matsuyoi: between Imperfection and Perfection, 긴자 6 클럽갤러리,  
도쿄, 일본

2016 Art Geneve 2016 with Taste, 제네바, 스위스  
Art Monte Carlo with Taste, 몬테카를로, 모나코  
Korea Now! Korean Crafts & Design in Munich 바이에른 민속박물관,  
뮌헨, 독일

2015 권대섭 & 이배, 김리아갤러리, 서울, 한국  
Korea Now! Craft, Design, Fashion and Graphic Design in Korea,  
장식미술관, 파리, 프랑스

2014 Full Emptiness: Materiality and Spirituality in Contemporary Korean  
Art, 주홍콩 재외한국문화원, 홍콩, 마운틴 아트 파운데이션, 베이징,  
프랭클린 아트센터, 베이징, 상하이유화조각미술관, 상하이, 중국  
2013 52nd Milano Triennial Design Exposition, 밀라노, 이탈리아  
2009 Design Miami, 마이애미, 미국, 바젤, 스위스

### 작품소장

기메뮤지움, 파리, 프랑스  
호림박물관, 서울, 대한민국  
삼성 리움 미술관, 서울, 대한민국  
국립민속박물관, 서울, 대한민국  
시카고미술관, 시카고, 미국  
방글라데시 국립 박물관, 다카, 방글라데시  
멕시코 국립민속박물관, 멕시코 시티, 멕시코  
러시아 국립박물관, 상트페테르부르크, 러시아

## 김근태

Kim Keun-Tai
<span></span>
<span></span>
<b>1953년 서울 출생</b>
<b>학력</b>
중앙대학교 예술대학 회화학과 졸업
<b>개인전</b>
1988 청년미술관 서울
1997 Discussion Or Encounter, 사비나갤러리, 서울
2000 담론-백자 성곡미술관 내일의 작가전, 성곡미술관, 서울
2002 Discussion – Nature 예맥화랑, 서울
Expo paris-Seoul Maison des Metallos, 파리, 프랑스
2004 Galerie Konrad Munter, Meerbusch, 독일
Georg-Meistermann – Museum, 비틀리히, 독일
Stadtmuseum 지크부르그, 독일
Stadtmuseum 올덴부르크, 독일
2010 Discussion – Nature, 대우갤러리
2012 Discussion-wall, 고도갤러리
2016 DISCUSSION, 통인옥션갤러리
2017 미술이 철학을 사유하다, 조선일보미술관

<b>단체전</b>
1981 한국미술청년작가회전
양상전 문예진흥원 미술회관
1982 종이작업36인전 관훈미술관
1985 서울방법전
1988 Seoul Contemporary Art Festival, 서울
Seoul-Worlds Contemporary Arts Exhibition, 서울
1990 Chung-Ang Modern Art Festival, 서울
서울vector전 관훈미술관
1991 제 10회 한국 예술작가전, 국립현대미술관, 서울
1992 Seoul Spec Contemporary Fine Art Festival, 서울
제 11회 한국 예술작가전, 국립현대미술관, 서울
1993 제 12회 한국미술청년작가전, 국립현대미술관, 서울
한국-호주 현대미술교류환전, Pholten, Atria
1995 오늘의 한국현대미술작가전, 서울
1996 예우 40주년 기념전, 서울
2004 The Exhibition Project "Zugvogel"
2007 내일의 작가들 성곡미술관
2017 3인3색전, 그룹전, 초이앤라거갤러리, 독일, 일본, 한국
한국미술의 풍경, 그룹전, 금산갤러리/동산방화랑, 서울
더로드, 2인전, UNC갤러리
2인전, 갤러리담
2018 한국의 후기단색화전, 그룹전, 리안갤러리, 서울,대구
평창동계올림픽, 특별전, 평창
2019 ‘담’ 전, White stone Gallery, 홍콩
한국현대미술작가전, 주홍공한국문화원, 홍콩
한국-베트남 현대미술교류전 "같은 듯 다른, 다른 듯 같은' 베트남국립미술관, 하노이
2020 텅빈총만展, 박여숙화랑, 서울

<b>작품소장</b>
성곡미술관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
하나은행 외 다수

## 김덕한

Kim Deok-Han
<span></span>
<b>학력</b>
2015 명지대학교 문화재보존관리학 석사 졸업
2009 배재대학교 철예과 학사 졸업
<b>문화재수리기능사</b> <span> </span> <b>웃칠공</b> <span> </span> <b>[문화재청]</b>
<b>문화재수리기능사</b> <span> </span> <b>도금공</b> <span> </span> <b>[문화재청]</b>
<b>개인전</b>
2019 CICA 미술관 개인전 / 김포, 한국
2018 팔레드서울 갤러리 초대 개인전 / 서울, 한국
2017 팔레드서울 갤러리 초대 개인전 / 서울, 한국
2016 갤러리H 초대 개인전 / 서울 현대백화점 무역센터, 한국
2014 팔레드서울 갤러리 신진작가 선정 초대 개인전 / 서울, 한국
<b>단체전</b>
2020 텅빈총만展, 박여숙화랑, 서울
2019 기획전 / ARTMORA 갤러리 / 서울, 한국
2019 ‘담’3인전 / WHITESTONE 갤러리 / H'QUEENS 7F, 홍콩
2019 한국현대미술전 / PMQ, 홍콩
2018 SEEA(Special Exhibition for Emerging Artists)2018 / 성남아트센터 / 성남, 한국
2018 한국청년작가전 / 조선일보 갤러리 /서울, 한국
2017 한, 중 청년작가전 / 평정지에스튜디오 / 제주, 한국
2016 기획전 / STARR SPACE 갤러리 / 뉴욕, 미국
2016 기획전 / ARTMORA 갤러리 / 뉴저지, 미국
2016 기획전 / ARTMORA 갤러리 / 뉴욕, 미국
2015 ‘연결고리’전 / 한벽원 갤러리 / 서울, 한국
2015 신진작가 단체전 / 팔레드서울 갤러리 / 서울, 한국

<b>아트페어</b>
2019 KIAF [WHITESTONE 갤러리] / 서울, 한국
2019 INDIA ARTFAIR [주인도한국문화원 선정] / 뉴델리, 인도
2017 아트 광주2017 / 광주, 한국
2016 제주국제아트페어 / 제주, 한국
2016 광주국제아트페어 / 광주, 한국

<b>수상</b>
2019 인카네이션문화예술재단 예술상 수상

## 김아타

Atta Kim
<span></span>
<b>1956년 경상남도 거제 출생</b>
<b>학력</b>
창원대학교 기계공학과 졸업
<b>개인전</b>
2001 Atta Kim, The Museum Project, Society for Contemporary Photography, 캔사스, 미국
2006 Atta Kim: ON-AIR, International Center of Photography, 뉴욕, 미국
2008 Atta Kim: ON-AIR, 로망갤러리, 서울, 한국
2009 ATTAKIM: ON-AIR, 김아타 베니스비엔날레 연계 특별전, Palazzo Zenobio Venezia, 베네치아, 이탈리아
<b>단체전</b>
1985 Man, 한마당 갤러리, 부산, 한국
1986 Monologue, 부산갤러리, 부산, 한국
1987 psychopath, 예총갤러리, 서울, 한국
1988 Child of Nucleus, 파인힐 갤러리, 서울, 한국
1990 Father by Atta Kim, 한마당 갤러리, 서울, 한국
1991 Horizon of Korean Photography, 토탈미술관, 서울, 한국
1992 Horizon of Korean Photography, 서울시립미술관, 서울, 한국
1993 The Korean People by Atta Kim, Nikon Salon Gallery, 도쿄, 일본
1994 차세대 시각, 예술의 전당, 한가람 미술관, 서울, 한국
1995 Expressional Medium of Korean, Contemporary Art, 서울시립미술관, 한국
1996 Photography is Photographic, 삼성사진갤러리, 서울, 한국
1997 일상의 신화, 선재미술관, 경주, 한국
1998 Alienation & Assimilation, 현대사진박물관, 시카고, 미국
1999 The Segment of Time, 서남아트센터, 서울, 한국
2000 Odense Foto Triennale Festival of Light, 옌센세, 덴마크
2002 제25회 상파울로 비엔날레, 바실리카
2003 Point of Time, 갤러리 가나 보브르, 파리, 프랑스
2004 FotoFest20, Moscow Museum of Contemporary Art, 모스크바, 러시아
2005 Fart Forward:Photographic Message From Korea, Fotografie Forum International, 프랑크푸르트, 독일
2007 마이애미 소더비의 아시아 현대미술: 아시아 대표작가 30인, Mandarin Oriental, 마이애미, 미국
2020 텅빈총만展, 박여숙화랑, 서울

<b>수상</b>
1997 사진예술사 ‘올해의 작가상’ 수상
2002 런던 파이든출판사 선정-세계 100대 사진가
하남국제포토편스티벌 국제사진가상 수상
2003 이명동사진상 수상 이명동사진상 운영위원회
2007 동강사진상 수상 영월문화재단과 동강사진마을운영위원회
2008 제6회 하중현미술상

<b>출판</b>
2004 뉴욕 어퍼쳐 한국 작가 최초의 사진집 'The Museum Project' 발간
<b>작품소장</b>
마이크로 소프트 아트 컬렉션(Microsoft Art Collection)
휴스턴 미술관
LA카운티 미술관
후드 미술관
국립현대미술관
리움 삼성미술관
아트선재미술관 외

## 김창열

Kim Tschang-Yeul
<span></span>
<b>1929년 평안남도 맹산 출생</b>
<b>학력</b>
1950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졸업, 서울
1968 뉴욕 아트스튜던트리그 판화 전공, 뉴욕, 미국
1970 파리 국립미술학교, 파리, 프랑스
<b>주요 개인전(2005년이후 발매)</b>
2006 표갤러리 베이징, 베이징, 중국
2009 부산시립미술관, 부산
2010 갤러리현대, 서울
2012 국립대만미술관, 타이중, 대만
2013 박여숙 화랑, 제주
2014 광주시립미술관, 광주
2017 필람갤러리, 홍콩, 중국
2018 알마인레치 갤러리, 뉴욕, 미국 외 다수
<b>주요 단체전</b>
2000 한국현대미술의 시원, 국립현대미술관, 과천
2001 한국 현대미술의 전개: 전환과 역동의 시대-1960년대 중반~1970년대 중반, 국립현대미술관, 과천
2002 한국 현대미술의 전개 1970년대 중반~1980년대 중반:사유와 감성의 시대, 국립현대미술관, 과천
2004 한국평면회화-어제와 오늘, 서울시립미술관, 서울
2005 수목의 시, 기메국립아시아미술관, 파리, 프랑스
2006 김환기 김창열 이우환 1970-1980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나라, 갤러리현대, 서울
2007 언어적 형상, 형상적 언어: 문자와 미술전, 서울시립미술관, 서울
포이트리 인 모션, 바이엘러갤러리, 바젤, 스위스
2008 작품의 재구성, 경기도미술관, 안산
2009 신희탄, 국립현대미술관, 서울
2010 초토의 시: 한국전쟁의 초상, 서울대학교미술관, 서울
한국 드로잉 30년, 소마미술관, 서울
OFF the WALL: 건축도자, 경계에서, 클레이아크 김해미술관, 김해
2011 기가 차다, 대구시립미술관, 대구
2012 한국 모더니즘 미술의 사유, 포항시립미술관, 포항
여백,말할 수 없는 것을 말하다, 박여숙 화랑, 서울
2013 진실의 순간, 뮤지엄 산, 원주
2020 텅빈총만展, 박여숙화랑, 서울

<b>주요 수상</b>
1996 프랑스 문화예술공로훈장 슈발리에, 프랑스
2012 은관문화훈장 대한민국 정부
2017 프랑스 문화예술공로훈장 오피시에, 프랑스
제62회 대한민국예술원상 미술부문

<b>작품소장</b>
광주시립미술관 / 국립현대미술관, 과천 / 대구미술관 / 대전시립미술관 / 뮤지엄 산 / 부산시립미술관 / 삼성미술관 리움 / 서울대학교미술관 / 서울시립미술관 / 아트센터 나비 / 우양미술관 / 호암미술관 / 기후미술관 / 니가타현립근대미술관 / 도쿄국립근대미술관 / 도쿄도미술관 / 물의 나라 미술관 / 베란느망재단미술관 / 보스턴미술관 / 보이만스 반 뷔닝겐미술관 / 보훤미술관 / 사이타마현대미술관 / 스템플리재단 / 시모노세키시립미술관 / 울브라이트-눅스 갤러리/오하라미술관 / 워니펙갤러리 / 이와키시립미술관 / 쥘른 동아시아미술관 / 다카마츠시립미술관 / 텍사스 공과대학미술관 / 퐁피두 센터 / 허시헌박물관과 조각공원 / 후쿠오카미술관/히로시마현대미술관

## 김태호

Kim Tea-Ho
<span></span>
<span></span>
<b>1948년 부산 출생</b>
<b>학력</b>
1984 홍익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
1972 홍익대학교 미술학부 서양화와 학사

<b>개인전</b>
1977 한국문예진흥원 미술회관
1984 무라마츠화랑, 동경, 일본
1985, 86, 91 현대화랑, 서울
1995 원화랑, 서울
1996 가마쿠라화랑, 동경, 일본
2002 동경화랑, 동경, 일본
2015 부산시립미술관, 부산 외 다수

<b>단체전</b>
1972 제1회 INDEPENDENTS전, 국립현대미술관, 서울
1973 제1회 세계관화미술전, San Francisco 근대미술관 주최, 미국
20대 현대작가전, 국립현대미술관, 서울
1974 제1회 서울 BIENNALE, 국립현대미술관, 서울
1976 에콜·드·서울전, 국립현대미술관, 서울
1980 제12회 카뉴 국제회화제, 카뉴, 프랑스
한국판화, DRAWING대전, 국립현대미술관, 서울
1981 청년작가전, 국립현대미술관, 서울
1982 한국 현대미술의 위상전, 도쿄도미술관, 도쿄, 일본
1984 한국현대미술전 70년대의 조류, 타이베이시립미술관, 대북, 대만
1985 현대한국인의 종이 예술전, Sarah Spurgeon, 워싱턴, 미국
한국현대판화 어제와 오늘전, 호암갤러리, 서울
1986 한국현대미술 어제와 오늘전, 국립현대미술관, 과천
1988 한국현대미술전-제24회 서울올림픽 대회기념, 국립현대미술관, 과천
1990 1990년 현대한국회화-한국 정신의 새로운 모색, 호암갤러리, 서울
1991 한국 현대미술의 한국성 모색Ⅱ, 한원 갤러리, 서울
현대한국회화, 호암갤러리, 서울
1992 선묘와 표현-1992한국현대회화, 호암갤러리, 서울
1993 한국현대판화 40년전, 국립현대미술관, 과천
2000 "정신"으로서의 평면성전, 부산시립미술관, 부산
광주비엔날레 특별전, 광주시립미술관, 광주
2002 70년대 단색조 평면 회화의 비평적 재조명, 환원미술관, 서울
2012 한국의 단색화, 국립현대미술관, 서울
2015 물성을 넘어, 여백의 세계를 찾아서, 가나아트센터, 서울
한국 현대미술 되돌아보기, S-space 호림아트센터, 서울
2017 한국미술의 산책Ⅲ:단색화, 뮤지엄 SAN, 강원도 등 수십회

<b>수상</b>
1968 7회 신인 예술상 장려상 수상 (문화공보부 주최, 서울)
1973, 1977 대한민국미술전람회(국전) 문화공보부 장관상 수상 (문화공보부 주최, 서울)
1980 제7회 한국미술대상전 최우수 프론티어상 수상 (한국일보 주최, 국립현대미술관, 서울)
1982 공간판화대상전 대상 수상 (공간미술관, 서울)외 다수

<b>작품소장</b>
국립현대미술관
서울 시립미술관
워커힐 미술관
호암미술관
연세대학교박물관
下關市立美術館, 일본
대영박물관, 영국
Museum of GuangZhou Academy of Fine arts, 중국 외 다수

## 김택상

Kim Taek-Sang
<span></span>
<span></span>
<b>1958년 출생</b>
<b>학력</b>
1987 홍익대학교 대학원 서양화와 졸업
1985 중앙대학교 예술대학 회화와 졸업

<b>개인전</b>
2009 소소갤러리, 헤이리 파주
2010 대구치 파인아트, 동경, 일본
갤러리아스, 대구
2013 In Between there, 데이트 갤러리, 부산
2014 대구치 파인아트, 동경, 일본
2016 대구치 파인아트, 동경, 일본
2017 '빛'으로 머물다, 4계절 전시프로젝트(겨울), 갤러리 아소, 대구
2018 대구치파인아트, 동경, 일본
'바람' 에 머물다, 4계절 전시프로젝트(봄), 갤러리 아소, 대구
'물빛' 에 머물다, 4계절 전시프로젝트(여름), 갤러리 아소, 대구
'시간' 에 머물다, 4계절 전시프로젝트(가을), 갤러리 아소, 대구
2019 '색과 빛 사이에서', 리안갤러리, 서울 외 다수

<b>단체전</b>
2009 "Stillness into Color – Inframinge of Moonlight", 가와무라미술관, 일본지바2012 한국의 단색화, 국립현대미술관,과천
2013 담화-Reconfiguring Contemporary Art <span> </span> : From a Korean Perspective, ICAS미술관, 싱가포르
2014-15 텅 빈 공간:현대 한국 미술의 물성과 정신성 중국 상하이 SPSI 미술관, 주 베이징한국문화원, 주 베를린 한국문화원, 인도네시아 국립미술관 자카르타 인도네시아 브라질조각미술관 상파울루, 레콜레타 문화센터(Centro Cultural Recoleta) 부에노아 이레스 아르헨티나
2016 네오모로이즘(4th), 동경화랑+BTAP, 북경, 중국
2017 윤희근 김택상2인전, 샹타갤러리, 서울
2018 네오모로이즘(5th), 칭화대학교미술관, 북경, 포스트단색화전, 리안갤러리, 서울
2019 '담색물성' ,웅갤러리, 서울
한국-베트남 현대미술교류전 "같은 듯 다른, 다른 듯 같은" 베트남국립미술관, 하노이
2020 텅빈공간展, 박여숙화랑, 서울

<b>작품소장</b>
국립현대미술관
리움 삼성미술관
수원시립아이파크미술관
일본 요코가와 일렉트릭
홍콩 포시즌스호텔

<b>출판</b>
'머물다. 김택상 사계절 전시첩.'(김택상, 에프북, 2019. 10. 25)

## 남춘모

Nam Tshun-Mo
<span></span>
<span></span>
<b>1961 경북 영양 출생</b>
<b>학력</b>
1982-88 계명대학교 미술대학 및 동대학원 졸업
현재 대구 및 독일 쾰른에서 거주 및 작업

<b>개인전</b>
2020 Ceysson & Bénétière, Paris, 프랑스
2019 리안갤러리, 서울
루드비히미술관, 코블렌츠, 독일
2018 풍경이 된 선, 대구미술관, 대구
선의 충돌과 재확산, 경남도립미술관, 창원
2017 안도파인아트, 베를린, 독일
2016 남춘모, 리안갤러리, 대구
Art`Loft, 브뤼셀, 벨기에
2015 남춘모, 리안갤러리, 서울
Where light and dark collide, 안도파인아트, 베를린, 독일
빔 2015, 쿤스트라움21, 본, 독일
2014 갤러리 604, 부산
갤러리 예동, 부산
2013 Holly Hunt & Nam Tchun Mo, 홀리 헌트, 뉴욕, 미국
IBU 갤러리, 파리, 프랑스
스페이스 홍지, 서울
2012 갤러리 M, 대구
비비 스페이스, 대전
갤러리 L/S, 뉘렌베르그, 독일
2011 IBU 갤러리, 파리, 프랑스
2001 박여숙 화랑, 서울

<b>그룹전</b>
2019 대구아트페어, 박여숙화랑, 대구
2018 한국의 후기 단색화, 리안갤러리, 서울
Absence, 아트포프트, 브뤼셀, 벨기에
2017 Beautiful Black, 리안갤러리, 대구
2016 Made in the EAST, MDZ Art 갤러리, 크노케, 벨기에
쿤스트타게 비닝겐, 비닝겐, 독일
변화하는 시간, 쿤스트라움21, 본, 독일
2015 코리아 투모로우 2015, 성곡미술관, 서울
Leading Artists 2015, 대구문화예술회관, 대구
한국현대미술 초대전, 울산문화예술회관, 울산
2014 AHA, 쿤스트라움21, 본, 독일
Painting not Painting, 박여숙 화랑, 서울
2013 갤러리 라우스베르그 10주년 기념전, 뒤셀도르프, 독일
3인전, 동원 화랑, 대구
한국 현대미술의 재구성, ICAS, 싱가포르
색-감성을 속삭이다, 일우스페이스, 서울
2012 한국의 모노크롬, Dorothea van der koelen 갤러리, 마인쯔, 독일
한국의 단색화, 국립현대미술관, 과천
빛 과 색, Space bbk, 쾰른, 독일

<b>작품소장</b>
국립현대미술관, 과천
리움-삼성미술관, 서울
서울시립미술관, 서울
부산시립미술관, 부산
대구미술관, 대구
경남도립미술관, 창원
금호미술관, 서울
Galila Barzilai Hollander collection, 벨기에

## 박서보

Park Seo-Bo
<span></span>
<span></span>
<b>1931 경상북도 예천 출생</b>
<b>학력</b>
1955 홍익대학 문학부 미술과 졸업

<b>개인전</b>
1962 원형질 국립중앙도서관 화랑 서울
1976 통인화랑 서울
1981 현대화랑 서울
1991 박서보 회화 40년 국립현대미술관 과천
1996 바젤아트페어, 박여숙화랑
2002 박여숙화랑, 서울
2019 〈박서보 회고전: 지칠 줄 모르는 수행자〉,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서울 등 90여회

<b>단체전</b>
1956 4인전 (김영환, 김충선, 문우식, 박서보) 동방문화회관 3층 서울
1958 한국현대작가전 월드하우스갤러리 뉴욕 미국
1959 제3회 현대작가초대미술전, 조선일보사 주최, 경복궁미술관, 서울
1962 제1회 사이공 국제비엔날레, 사이공, 베트남.
제1회 약뚜엣전, 중앙공보관, 서울.
제1회 문화자유초대전, 세계문화자유회의 한국본부 주최, 중앙공보관, 서울.
1963 제3회 파리 비엔날레, 파리, 프랑스.
1965 제8회 상파울로 비엔날레, 세킬로 마타라조 파빌리온, 상파울로, 브라질.
1967 EXPO '67 한국관 특별전, 몬트리올, 캐나다.
1968 한국현대회화, 도쿄국립근대미술관, 도쿄, 일본.
1970 오사카 엑스포 '70 한국관 특별전, 수이타, 일본.
1973 국립현대미술관 이전개관 기념전: 한국 현역화가 100인, 국립현대미술관(덕수궁), 서울.
1975 한국 5인의 작가 다섯가지 흰색, 도쿄화랑, 도쿄, 일본.
제1회 에플드 서울, 국립현대미술관(덕수궁), 서울.
1976 한국: 현대미술의 단면, 도쿄 센트럴미술관, 도쿄, 일본.
1983 한국현대미술전: 70년대 후반, 하나의 양상, 도쿄도미술관 & 도지끼근대미술관 & 국립
1984 60년대의 한국현대미술: 앵포르멜과 그 주변, 워커힐 미술관, 서울.
1988 제43회 베니스 비엔날레, 베니스, 이탈리아.
1992 Working with Nature: Traditional Thought in Contemporary Art from Korea, The Tate Liverpool, Liverpool, UK.
1996 한국 추상회화의 정신, 호암미술관, 서울
2000 한국현대미술의 시원, 국립현대미술관, 과천
2001 한국 현대미술의 전개: 전환과 역동의 시대-1960년대 중반~1970년대 중반, 국립현대미술관, 과천
2002 한국 현대미술의 전개 1970년대 중반~1980년대 중반:사유와 감성의 시대, 국립현대미술관, 과천
2011 코리안 랩소디: 역사와 기억의 몸타주, 리움삼성미술관, 서울.
2020 Marking Time: Process in Minimal Abstraction, Solomon R. Guggenheim Museum, New York, USA.
2020 텅빈공간展, 박여숙화랑, 서울

<b>수상</b>
1995 제44회 서울특별시 문화상 미술부문 수상(서울시)
2011 은관문화훈장 수훈(대한민국 정부)
2015 워싱턴 D.C 허쉬혼 뮤지움(Hirshhorn Museum) 40주년 기념 시각미술상 수여

<b>작품소장</b>
국립현대미술관, 리움 삼성미술관 Pola Museum of Art, Hakone, Japan.
The Art Institute of Chicago, Chicago, USA, The Museum of Modern Art (MOMA), NY, USA, Hirshhorn Museum and Sculpture Garden, Washington D.C, USA, Solomon R. Guggenheim Museum, NY, USA 등 다수

## 윤상렬

Yoon Sang-Yuel	
<span></span>	
<b>학력</b>	
경원대학교 회화와 졸업	
<b>개인전</b>	
2007 'FEAR' 갤러리2, 한국	
2015 차이의 공간 스페이스돔 미술관, 한국	
'Optical evidence Renzo Coritina 밀라노 이탈리아	
2016 검은 빛 갤러리 소소 한국	
2019 보이지 않는… 갤러리 데이트 한국 외 다수	
<b>단체전</b>	
2007 Mixed & Matched bitforms gallery, 한국 외 다수	
2008 Skape at aA 기획전 aA design museum Skape gallery, 한국	
2010 내일-오픈 아카이브 소마미술관 한국	
2014 Window of K-Art 인도네시아 국립박물관, 인도네시아	
AAF Milano 2014 Superstudio Piu Milano 이탈리아	
2015 무심 無心 소마미술관 한국	
Grand Opening of Paris 특별전 오페라갤러리, 프랑스	
2016 경기잡가 경기도미술관 한국	
제 3지대 가나인사아트센터 한국	
갤러리 위켄드 코리아 2016 복합문화공간 네모, 한국	
2018 SARUBIA Support 프로젝트 스페이스 사루비아 다방 한국	
Art Paris 2018 파리 프랑스	
2019 Flag Art-바람과 흔적 청주공예비엔날레 한국	
Asia Now 2019 파리 프랑스	
한국-베트남 현대미술교류전 "같은 듯 다른, 다른 듯 같은' 베트남국립미술관, 하노이	
2020 텃빈총만展, 박여숙화랑, 서울	

### 수상

2008 소마드로잉센터 아카이브 등록 작가

2009 서울문화재단 예술표현활동지원 선정

### 레지던시

2007 파리국제공등예술제, 파리, 프랑스

## 윤형근

Yun Hyong-Keun	
<span></span>	
<b>학력</b>	
1928 충청북도 청원 출생	
<b>개인전</b>	
1947-49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서양화와 중퇴	
1955-57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서양화와 졸업	
<b>개인전</b>	
1966 신문회관 화랑,서울	
1973-74 명동화랑,서울	
1989 인공갤러리,서울	
1993 Locks갤러리,필라델피아	
도널드 저드화운데이션 뉴욕 미국	
1994 The Chinati Foundation,Marfa,Texas	
토탈미술관, 서울	
2001 선재미술관 경주	
2002 스트라스부르크 근현대미술관 스트라스부르크 프랑스	
윤형근 개인전 국립현대미술관	
2003 박여숙화랑, 서울	
2017 David Zwirner, New York, NY, USA외	
PKM갤러리 서울	
2018 윤형근 회고전 포르투니 미술관 베니스 이탈리아 와 다수	
<b>단체전</b>	
1961-63 양가주망전 국립중앙공보관화랑 서울	
1963 한국현대작가초대전 조선일보주최 신문회관화랑 서울	
1969 제10회 상파울로비엔날레 시실로 마타라쑤관 상파울로 브라질	
1973 한국현대미술 1957-1972 추상-상항 명동화랑 서울	
1975 제 13회 상파울로 비엔날레 시실로 마타라쑤관 상파울로 브라질	
1975-86 서울현대미술제 국립현대미술관 서울	
1976 제 8회 까뉴국제회화제 까뉴 프랑스	
한국현대미술 5인전 서울화랑 서울	
1976-86 예폴드 서울 국립현대미술관 서울	
1978 한국현대미술 20년의 동향 국립현대미술관 서울	
제5회 한국미술대상전 한국일보주최 국립현대미술관 서울	
1983 한국현대미술;70년대 후반, 하나의 양상전, 동경미술관, 도찌끼 현립미술관, 오사카 국립국제미술관, 홋카이도 근대 미술관, 후쿠오카 시립미술관, 일본	
1985 현대 한국인의 종이예술, 샌츄랄 워싱턴대학 주최, 사라스퍼전 갤러리, 워싱턴, 미국	
한국 양화 70년전, 호암갤러리, 서울	
광복40주년기념"현대미술40년전",국립현대미술관, 서울	
1987 한국 현대미술에 있어서의 "흑과 백"전, 국립현대미술관, 서울	
1991 한국 현대미술의 한국성 모색 2-환원과 확산의 시기, 한원갤러리,서울	
한국 현대미술의 한국성 모색3-갈등과 대결의 시대, 한원갤러리,서울	
자연과 함께-한국현대미술 속에 내재된 전통정신 테이트갤러리 리버풀 영국	
2000 한국현대미술의 시원 국립현대미술관 과천	
2001 한국현대미술 사유와 감성의 시대 국립현대미술관 서울	
2014 텃 빈 총만:현대 한국 미술의 물성과 정신성 중국 상하이 SPSI 미술관, 주 베이징	
한국문화원, 주 베를린 한국문화원, 인도네시아 국립미술관 자카르타	
인도네시아	
2016 새로운 시작 <span> </span> : 제스처와 기하학 사이 조지 에코노모우 컬렉션 아테네 그리스외 다수	
2020 텃빈총만展, 박여숙화랑, 서울	

### 수상

1978 제5회 한국미술대상전 대상, 한국일보 주최

1990 제1회 김수근 문화상, 김수근문화재단

### 작품소장

국립현대미술관, 서울 / 리움 삼성미술관, 서울 / 치나티 저드 화운데이션 말파 등 다수 / 시카고 아트 인스티튜드 시카고 미국 / M+ 미술관 홍콩외 다수

## 이진영

Lee Jin-Young	
<span></span>	
<b>학력</b>	
2001-2006 쾰른 미디어 예술대학교 미디어아트(사진) 졸업, 쾰른, 독일	
1993-1997 추계예술대학교 작곡과 졸업, 서울	
<b>개인전</b>	
2019 운하몽 雲花夢, 갤러리 아소, 대구	
운하몽 雲花夢, 물,나무 마당, 서울2017 풍경지간(景觀跨度)-사이의 풍경, 북촌박물관, 서울	
2015 바람이 알려준 것들, 우리들의 눈 갤러리, 서울	
2012 Historia, 쿤스트독 갤러리, 서울	
2010 습식(濕蝕), 청주미술창작스튜디오, 청주	
2009 retrace, 갤러리 bij de Boeken, 컬처 팩토리 DRU, 올프트, 네덜란드	
2006 retrace, 쿤스트라움 22, 쾰른, 독일	
2004 로덴키르헨의 다리, 갤러리프로젝트raum-포토키나, 쾰른, 독일	

### 단체전

2020 텃빈총만展, 박여숙화랑, 서울

2018 Secret Garden, Temenggong Artists-In-Residence, 싱가포르

2018 신몽룡주의(5th), Tsinghua University Visual Art Center/東京画廊+BTAP, 베이징, 중국

2017 이상동몽(異想同夢), 의외의 조합, 서울

2017 피우기, 갤러리 FP, 서울

2015 사진, 그 방법과 은유앞에서, 쿤스트독, 서울

2015 CRE8TIVE REPORT, OCI 미술관, 서울

2012 Finale, 쿤스트raum 22, 쾰른, 독일

2012 한시방향의 저글링때 전, 인사미술공간, 서울

2007 Grosse Kunstausstellung NRW D□sseldorf, 쿤스트팔라스트 미술관, 뒤셀도르프,독일

### 수상 및 레지던시

2011 제 1회 아트앤컬렉터 미술상 수상

2017 Temenggong Artists-In-Residence, 싱가포르

2015 Nomadic Arts Residency, 몽골

2014-2015 OCI 미술관 창작스튜디오 제 4기 입주작가, 인천

2010-2011 청주미술 창작스튜디오 제 4기 입주작가, 청주

## 이진우

Lee Jin-Woo	
<span></span>	
<b>학력</b>	
1959년 서울 출생	
<b>학력</b>	
1983 세종대학교 회화와 졸업	
1986 프랑스 파리 제 8대학 조형미술학 석사	
1983-89 프랑스 파리국립미술학교 미술 재료학 연구	
<b>개인전</b>	
1986 석화랑 (서울, 한국)	
1988 갤러리 한 (서울, 한국)	
1995 갤러리아 미술관 (서울, 한국)	
1999 갤러리 MICHEL REME (파리,프랑스)	
2002 가나아트 스페이스 (서울, 한국)	
2003 갤러리 M.C.P (파리, 프랑스)	
2006 마네아스(MANES) 갤러리 (프라하, 체코)	
2007 갤러리 MARIA LUND (파리, 프랑스)	
2008 FONDATION FRANCE 미술상 수상 기념전 (파리 ,프랑스 )	
2013 갤러리 H.T (북경,중국)	
2016 조선일보미술관 (서울, 한국)	
2017 동경갤러리 (도쿄, 일본)	
2019 Michel Soskine Inc., (마드리드, 스페인)	
2019 HDM Gallery (런던, 영국) 외 다수	

### 단체전(2000년이후)

2004 한강, 남양주아트센터 남양주 경기도

2005 한지, 라 르트 뒤 파 페르코엔, 파리

2006 스위트 페이퍼, 갤러리 마리아 룬드, 파리

2007 아시아 현대미술 뉴욕 Galerie 89 미국

2008 네덜란드 종이 비엔날레 라이스바이크미술관, 라이스바이크, 코다미술관 아펠도른 네덜란드

2009 계수기, 갤러리 마리아 룬드, 파리

회화 대생전 갤러리 마리아 룬드, 파리

부착전, 갤러리 마리아 룬드, 파리

2010 파리의 네거리, 아틀리에 구스타프 파리

KIAF 2010(한국 국제 아트 페어), 서울

2011 KIAF(한국 국제 아트 페어), 서울

2012 아트 온 페이퍼 브뤼셀 벨기에

2014 Charles Oulmont Foundation 설립 30주년 수상자 전시회 파리 시테 국제미술협회, 파리

12x12, 파리 마리아 룬드

2016 서울-파리-서울 프랑스의 한국화가들 세르누치박물관 파리 프랑스

2017 아트 파리아트페어 갤러리 마리아 룬드 파리 프랑스

아트 바젤 홍콩 도쿄화랑 홍콩

2018 Walking on the white side 이탈리아 한국문화원 로마 이탈리아

아트 마이애미 2018 리안갤러리 마이애미 미국

2019 Art Brussels 2019, HDM갤러리 브뤼셀, 벨기에

한 베트남 현대미술전-다른 듯 같은, 같은 듯 다른 베트남국립미술관 하노이 베트남

2020 텃빈총만展, 박여숙화랑, 서울

### 수상

2007 FONDATION FRANCE 미술상 수상 샤를 울몽재단 파리

### 출판

2016 이진우 개인작품집 Actes Sud출판사 파리 프랑스

### 작품소장

프랑스 파리시립 극동아시아미술관 세르누치 미술관 / 델렌은행 브뤼셀 벨기에 / 주식회사 통일 서울

## 정상화

<div><div></div><span> <b>Jung Sang-Hwa</b></span></div>
<span></span>
1932년 경북 영덕 출생
<b>학력</b>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회화과 졸업
<b>개인전</b>
1962 중앙공보관 서울
1968 잔 카미옹 화랑 파리
1969 시나노바시 화랑 오사카
1998 원화랑 서울
2007 갤러리 현대 서울
2011 생 테티엔 현대미술관 생 테티엔 프랑스 등 50여회
<b>단체전</b>
1958-1961 한국현대작가협회전
1958-1966 한국현대작가초대전, 경북공미술관
1962-1964 악뫼얌전
1963 세계문화자유회의초대전
1965 제4회 파리 청년비엔날레 파리 프랑스
1967 제10회 상파울로 비엔날레(브라질)
1978 한국현대미술 20년의 동향, 국립현대미술관
1980 제12회 칸느 국제회화제(프랑스)
1983 한국현대미술전, 도쿄도미술관(일본)
한국현대미술전-70년대 후반 하나의 양상(일본)
1984 60년대 한국현대미술; 옹포르멜과 그 주변, 워커힌미술관
1987 한국 현대미술에 있어서의 흑과 백전, 국립현대미술관
1996 한국 추상회화의 정신전, 호암갤러리
1997 제5회 NICAf 도쿄97 일본
1998 한국단색회화의 이념과 정신, 부산시립미술관
2000 한국현대미술의 시원 1950-1960 국립현대미술관
한국과 서구 전후 추상미술, 호암갤러리
조선조 백자와 현대미술, 정창섭, 박서보, 정상화, 전광영, 박여숙화랑
2002 한국현대미술의 전개 사유와 감성의 시대, 국립현대미술관
2004 한국의 평면 회화 어제와 오늘, 서울시립미술관
2014 텅 빈 층만:현대 한국 미술의 물성과 정신성 중국 상하이 SPSI 미술관, 주 베이징 한국문화원, 주 베를린 한국문화원, 인도네시아 국립미술관 자카르타 인도네시아 외
2020 텅빈층만展, 박여숙화랑, 서울

<b>작품소장</b>
국립현대미술관
리움 삼성미술관
구겐하임 미술관, 아부다비, 미국
시카고 아트인스티튜트, 시카고, 미국
생테티엔 현대미술관, 생테티엔, 프랑스
오하라 미술관, 오카야마, 일본
허쉬혼 미술관, 워싱턴, D.C., 미국 외 다수

## 정창섭

<div><div></div><span> <b>Chung Chang-Sup</b></span></div>
<span></span>
1927년 충청북도 청주 출생
<b>학력</b>
청주사범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회화과
<b>개인전</b>
1984 두손갤러리 서울
1993 호암갤러리 서울
1994 도쿄화랑 도쿄
1999 박여숙화랑 서울
2010 국립현대미술관 과천
2016 국제화랑, 악셀 부르보르트화랑 안트워프 벨기에 외 20여회
<b>단체전</b>
1961 제2회 파리 청년비엔날레 파리
1965 제8회 상파울로비엔날레 상파울로, 브라질
1966 극동 6개국 현대미술초대전 메이시 백화점 뉴욕, 미국
1969 제1회 카뉴 국제회화제 카뉴, 프랑스
1969-72 한국 현대회화전 인도, 아프카니스탄, 네팔
1974 제3회 인도 트리엔날레 인도
1983-99 에콜 드 서울 관훈미술관, 서울
1983 한국 현대미술전 "70년대 후반-하나의 양상" 도쿄도미술관, 도시기현 근대미술관 등
1986 한국 현대미술 어제와 오늘전 국립현대미술관, 서울
살롱 데 자르티스트 프랑세 그랑팔레 미술관 파리
1987 한국 현대미술 4인전 레보러토리 화랑, 샤포로
1988 한국 4인전 도쿄화랑, 도쿄
1992 자연과 함께-한국 현대미술에 깃든 전통정신 테이트 갤러리 리버풀 영국
1995 한국 현대미술 파리전 (코르들리에 미술관, 파리)
1997 바젤아트페어, 바젤, 박여숙화랑
1998~2000 침묵의 화가들-오늘의 한국전 뷔르템베르그 미술관, 뮌헨리아르, 프랑스, 아시아 미술관, 니스, 프랑스
2000 광주 비엔날레 2000 광주 시립미술관
한국 현대미술의 시원 국립현대미술관 과천
2002 한국 현대미술 사유와 감성의 시대 국립현대미술관 과천
2003 한국 현대미술의 전개 사유와 감성의 시대 국립현대미술관 과천
2014~17 텅 빈 층만:현대 한국 미술의 물성과 정신성 중국 상하이 SPSI 미술관, 주 베이징 한국문화원, 주 베를린 한국문화원, 인도네시아 국립미술관 자카르타 인도네시아 브라질조각미술관 상파울루
2018 한국의 추상미술 파워 롱미술관 상하이
2020 텅빈층만展, 박여숙화랑, 서울

<b>수상</b>
1962 제1회 사이공 국제비엔날레, 동메달 및 ESSO상
1980 대한민국미술전람 초대작가상
1987 제3회 중앙문화대상(예술부문)
1993 국민훈장 목련장

<b>작품소장</b>
국립현대미술관 / 서울시립미술관
대전시립미술관 / 부산시립미술관
리움 삼성미술관 리움 / 도쿄도미술관
히로시마미술관 / 홍콩 M+ 미술관
아부다비 구겐하임미술관 / 네덜왕립미술관
시모노세키미술관

## 최병소

<div><div></div><span> <b>Choi byung-So</b></span></div>
<span></span>
1943년 대구 출생
<b>학력</b>
1974 중앙대학교 예술대학 회화학과 서양화 전공
1985 계명대학교 대학원 졸업
<b>개인전</b>
1975 시립도서관 화랑, 대구
1979 무라마츠화랑, 동경
1997 시공 갤러리, 대구
2003 시공 갤러리, 대구
2008 가인갤러리, 서울 봉산문화회관, 대구
2009 갤러리 육공사, 부산
2011 아소갤러리, 대구 대구문화예술회관, 대구
2012 최병소전 대구미술관 대구
2015 아라리오갤러리 서울
2018 우손갤러리 대구 외 다수
<b>단체전</b>
1974-79 대구현대미술제 대구
1976-79 에콜 드 서울 국립현대미술관, 서울
1977 한국 현대미술의 단면, 센트럴미술관 도쿄 일본
1776-79 에콜 드 서울, 국립현대미술관, 서울
1977 한국 현대미술전 역사박물관 타이페이
1978 한국 현대미술 20년 동향전, 국립현대미술관, 서울
1979 상파울로 비엔날레 시실로 마타라초관 상파울로 브라질
1996 한국모더니즘의 발전 금호미술관 서울
1999 한 시대의 연금술 엿보기, 부산시립미술관, 부산
2000 한국과 일본 현대미술의 양상 광주비엔날레 광주
2002 한국현대미술의 전개 1970년대 중반-1980년대 중반 사유와 감성의 시대 국립현대미술관 서울
2011 이인성미술전 수상작가전 대구문화예술회관 대구
2011 개관특별전 기가 차다 대구미술관 대구
2014 사물의 소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

<b>작품소장</b>
국립현대미술관
서울시립미술관
부산시립미술관
대전시립미술관
대구문화예술회관

## 최상철

<div><div></div><span> <b>Choi Sang-Chul</b></span></div>
<span></span>
1946년 출생
<b>학력</b>
1969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회화과
<b>개인전</b>
1982 한국문화예술진흥원 미술회관 서울
1986 관훈미술관 서울
1990 한국문화예술진흥원 미술회관 서울
1994 금호갤러리 서울
1996 깃쇼도갤러리 교토
1999 2001 상갤러리 서울
2003 라메르갤러리 서울
2005 모란갤러리 서울
2007 갤러리 쿤스트웍 서울
2009 갤러리 쿤스트 톡 서울
2016 갤러리 그림슨 서울
2018 아트 스페이스 3 서울
<b>단체전</b>
1968 동아국제미술전 동아대학교 주최 부산
1973~1975 신체제전
1974 한국 실험작가전, 대백갤러리 대구백화점
1980~1984 프로세스전 한국문예진흥원 미술회관 서울
1981 상파울로 비엔날레 시실로 마타라초관 상파울로 브라질
1984~1988 동세대전, 관훈미술관
1989~1991 Abstract전
1990 새로운 정신전, 금호미술관
한국 미술-오늘의 상황, 예술의 전당
1997 Dot, 금호미술관, 서울
2001 한국 현대미술의 전개-전환과 역동의 시대 국립현대미술관 과천
또 하나의 국면-한국 현대미술의 동시대성 한원미술관 서울
2002 한국현대미술의 전개 1970년대 중반-1980년대 중반 사유와 감성의 시대
국립현대미술관 과천
2003 최상철, 류장복 2인전-아당리, 들판, 들꽃 가일미술관, 가평
2012 한국드로잉 50년 예술의 전당, 서울
2016 동작의 전환 소마미술관, 서울
2017 아시아의 디바, 서울시립북서울미술관 외 다수
2020 텅빈층만展, 박여숙화랑, 서울

<b>수상</b>
1970 한국미술대상전 서울특별시장상 수상(한국일보 주최, 경북공 국립현대미술관)

<b>작품소장</b>
국립현대미술관

Catalogue

This catalogue is published in conjunction with the exhibition

Production by **Memoryworks**

Published by **PARK RYU SOOK GALLERY**

Copyrights **박여숙화랑 | PARK RYU SOOK GALLERY 2020**

본 출판물의 저작권은 박여숙화랑에 있습니다.

이 책에 실린 글과 사진의 무단전재와 복제를 금합니다